

말일성도
예수그리스도
교회

성도의 밤 10 1998

본책 부록 : 어린이란



표지 어린이 내 신문

12쪽 참조



표지

교회 잡지를 비롯한 교회의 훌륭한 지원은 "우리의 가치관을 지키며 우리가 주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데 도움이 됩니다." "전세계인을 위한 잡지", 32쪽 참조(사진 촬영: 크레이그 다이몬드와 제리 간스)

어린이란 표지

열 살의 아리에타나는 태평양의 키리바시 섬에 살고 있다. 그는 초등학교에 참석하고 학교에 가며 낚시하는 것을 즐기며, 또한 전통 무용을 하는 것도 매우 좋아한다. "키리바시의 아리에타나", 14쪽 참조(사진 촬영: 조이스 판들레이)

일반

- 2 대관장단 메시지: 영을 먹이고 영혼을 살찌움
고든 비 힐클리 대관장
- 12 가족 헨리 비 아이어링 장로
- 24 가족: 세상에 전하는 선언문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 대관장단 및 십이사도 평의회
- 25 방문 교육 메시지: 해의 왕국의 결혼
- 26 "너희는 도적질하지 말찌니라" 리처드 디 드레이퍼
- 32 전세계인을 위한 잡지 마빈 케이가드너
- 38 동유럽에 뿌리내린 복음에 대한 회고
데니스 비 노안슈안더 장로

청소년란

- 8 사사 스트리코바 마빈 케이가드너
- 36 가장 귀한 질문 팻 데이어스

어린이란(별책 부록)

- 2 친구가 친구에게: 수잔 엘 워너
- 4 노래: 아름다운 구세주
- 6 함께 나누는 시간: 나는 지금 선교사가 될 수 있다 시드니 레이놀즈
- 8 이야기: 축구공의 비밀 엘다 제이 에이츠
- 13 심심풀이: 구약전서 이야기 주대니
비버안 폴슨과 코리스 클레이튼
- 14 친구 사귀기: 키리바시의 아리에타나 조이스 판들레이

어린이란 14쪽 참조



38쪽 참조

성도의 벗은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의 공식적인 잡지임.

대판장단: 고든 비 힐클러, 토마스 에스 몬슨, 제임스 이 파우스트

십이사도 정원회: 보이드 케이 퍼커, 엘 톨 페리, 데이비드 비 헤이트, 닐 에이 맥스웰, 러셀 엠 넬슨, 델린 에이 지 옥스, 엠 러셀 벨라드, 조셉 비 워스킨, 리처드 지 스코트, 로버트 디 헤일즈, 제프리 알 홀런드, 헨리 비 아이어링

편집인: 책 에이치 고슬린드
고운: 제이 이 켈슨, 존 엠 매드슨

교과 파장부 관리자:
관리 책임자: 로날드 엠 나이튼
기획과 편집 책임자: 브라이언 케이 켈리
그래픽 책임자: 앨런 알 로이브크

편집 스태프:
관리 편집인: 마빈 케이 가드너
관리 편집인 보조: 알 말 존슨
부편집인: 데이비드 미첼, 디앤 워커
편집 보조: 제니퍼 그리우드
편집/제작 부장: 매리엔 미틴델
제작 보조: 베스 데일리

디자인 스태프:
잡지 그래픽 부장: 엠 엠 가라사키
미술 책임자: 스킵 밴 캄펜
디자인어: 새리 쿡
제작 부장: 제인 앤 피터스
생산 관리: 레지널드 제이 크리스티슨, 데니스 커비, 레드 알 피터슨

구독 담당 스태프:
책임자: 케이 더블류 브릭스
배부 부장: 크리스 크리스티슨
부장: 조이스 헨슨

통 권: 제 391호, 제 35권, 제 10호
등 록: 1967년 10월 4일, 라-3186
발행일: 1998년 10월 1일(월간지)
발행인: 최윤환
편집인: 홍우광

발행소: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
서울특별시 중로구 청운동 7번지
인쇄인: 삼립 인쇄 주식회사 김현수
성도의 벗 1년 구독료는 5,000원입니다. 일반호는 권당 500원이며, 특집호는 1,000원입니다. 성도의 벗 해외 구독일 경우 항공 우편료 1지역(일본, 중국, 대만, 홍콩) 21,000원, 2지역(동남아시아) 27,000원, 3지역(북미, 유럽, 중동, 호주) 35,400원, 4지역(아프리카, 중남미, 남태평양) 37,200원이며 우송료는 독자가 부담하셔야 합니다.

주소의 변경이 있을 때에는 소속 워드/지부와 변경된 주소를 배부 센터(☎738-6832, 청운동)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고와 문의 사항을 다음 주소로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International magazines, 50 East North Temple, Floor 25, Salt Lake City, UT 84150-3223, USA.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의 국제 기간지인 본 잡지는 한국어 외에 다음 언어로 출판됨.

월 간-중국어, 덴마크어, 네델란드어, 핀란드어, 영어, 프랑스어, 독일어, 이탈리아어, 일본어, 한국어, 노르웨이어, 포르투갈어, 시모아어, 스페인어, 스웨덴어 및 통가어
격월간-인도네시아어, 타이어
계 간-불가리아어, 세부어, 체코어, 피지어, 길버트어, 헝가리어, 아이슬란드어, 폴란드어, 루마니아어, 러시아어, 타갈로그어, 우크라이나어, 베트남어

©1998 by Intellectual Reserve, Inc. All rights reserved. Printed in Korea.

October 1998 no. 10. SONGDO-UI POT(ISSN 1044-3444) is published monthly by The Church of Jesus Christ of Latter-day Saints, 50 East North Temple, Salt Lake City, UT 84150. USA subscription price is \$10.00 per year; Canada, \$14.00. Periodicals Postage Paid at Salt Lake City, Utah. Sixty days' notice required for change of address. Include address label from a recent issue; changes cannot be made unless both old and new address are included. Send USA and Canadian subscriptions and queries to Salt Lake Distribution Center, Church Magazines, PO Box 26368 Salt Lake City, UT 84126-0368. Subscription help line: 1-800-537-5971. Credit card orders(Visa, MasterCard, American Express) may be taken by phone. POSTMASTER: Send address changes to Salt Lake Distribution Center, Church Magazines, PO Box 26368, Salt Lake City, UT 84126-0368.

가족: 세상에 전하는 선언문

1996년 여름 동안 우리 가족은 어느 러시아 민속 무용단의 음악 연주자 두 명을 집에 초대하였습니다. 저는 그 무렵 남편을 위해 리아호나(러시아어 판)을 구독 신청했었는데, 어느 날 아침, 손님 가운데 한 분이 1996년도 6월호를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독서용 안경을 꺼내 들고서 특별히 한 쪽을 유심히 보는 것이었습니다. 그런 뒤, 그 쪽을 다른 러시아 손님에게 읽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나중에야 잡지에서 그토록 관심을 끌었던 부분이 대판장단 및 십이사도 평의회가 발표한 '가족: 세상에 전하는 선언문' 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주말에 그들은 떠날 채비를 하면서, 가족 선언문이 있는 그 잡지를 기념품으로 줄 수 있다고 물었습니다. 우리 가족과 함께했던 시간이 좋은 추억으로 남기를 바라며 즐거운 마음으로 선물했습니다.

빅토리아 모리스
유타 바운티풀 하이츠 스테이크
바운티풀 제41와드

회원 선교 사업에 도움이 됨

저는 *세이포 노 미찌*(일본어 판)를 좋아합니다. 매달 잡지에 실리는 훌륭한 내용들은 제게 큰 힘이 됩니다. 저는 종종 잡지에서 좋은 기사들을 복사하여 친구들과 구독자들에게 나누어 주곤 합니다.

가주코 오이카와
일본 모리오카 지방부
키타카미 지부



현대 예언자들의 모범

저와 제 가족에게는 *리아호나*(스페인어 판)가 축복입니다. 많은 기사들 중 특별히 대판장단 메시지는 저의 신앙을 더욱 굳세게 해줍니다. 리아호나는 옛 선지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가르치고 그분을 증거했듯이 주님은 예언자들을 성임하여 우리에게 그분을 증거하고 그분의 가르침을 나누도록 하신다는 간증을 사뭇도록 도와주십니다. 예언자들의 모범은 제가 주님의 가르침에 따라 살겠다는 소망을 갖게 합니다. 다른 많은 말일성도 청년 청년들처럼 저도 복음 선교사로 봉사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리하이 스펜서 산티아고 라스트라
페루 후이누코스 아마릴리 스테이크
로스 마르티데스 와드

감동의 메시지들

리아호나(스페인어 판)는 저에게 큰 감동을 줍니다. 제가 가장 좋아하는 부분은 청소년들과 애독자 편지란입니다. 저의 감사함을 보내며 계속 좋은 내용 부탁드립니다.

다일로 코폴로 테 일라
콜롬비아 카르타게나 엘 보스케 지방부
엘 소코로 지부



영을 먹이고 영혼을 살찌움

고든 비 힝클리 대관장

고대의 예언자 아모스는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날
이 이틀짜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갈함이 아니요 여호와와 말씀 듣지 못한 기갈이라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에서 동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와 말씀을 구하려고
달려 왕래하되 얻지 못하리니”(아모스 8:11~12)

진실로 이 세상에는 굶주림과 목마름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주님의 말씀에 대한 굶주
림이요, 영적인 것에 대한 결핍을 말합니다. 저는 세상이 영의 양식에 굶주려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영혼을 살찌게 하는 것은 우리의 의무이자 기회입니다.

성신의 인도를 구함

100여 년 전에 브리감 영 대관장은 “당신의 교회와 왕국의 모든 신권 소유자와 권능을
지닌 분들을(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그들이 자신의 모든 의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성신의 인도를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드렸습니다.

이 기도는 브리감 영 대관장이 태버넌클에서 처음으로 열린 교회의 연차 대회에서 하신
것입니다.

그것은 1867년 10월 6일의 일이었습니다. 그날 주님께 드린 그의 간구는 130여 년이 지



저는 여러분께서
교리와 성약 121편에
나와 있는 주님의 말씀대로
여러분의 가족을 다스린다면,
여러분은 기뻐할 것이며,
여러분이 책임지고 있는
여러분의 가족들도
기쁨을 얻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주저하지 않고
약속드립니다.

난 오늘날에도 필요한 기도입니다.

우리는 많은 행정상의 책임을 수행하는데 있어서도 성신을 필요로 합니다. 공과 시간에 복음을 가르치거나 세상에 복음을 전할 때에도 성신을 필요로 합니다. 우리의 가족들을 가르치거나 이끄는 데에도 성신을 필요로 합니다.

우리가 그러한 영의 영향 아래 지시하거나 가르칠 때, 우리가 책임지고 있는 사람들의 삶에 영성을 가져 오게 할 것입니다.

전세계에 퍼진 교회

교회가 급속도로 성장함에 따라, 우리는 주님의 왕국에 관한 사업의 중요성을 점차 인식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가족을 가르치는 포괄적인 프로그램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린이, 젊은이, 어머니와 아버지를 위한 조직을 각각 갖고 있습니다. 우리는 대규모의 선교사 조직, 대단위 복지 사업 체제, 그리고 아마도 세계에서 가장 방대한 가족 역사 프로그램 등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수백 개 아니, 수천 개의 예배당을 지어야 합니다. 우리는 학교와 신학 연구원 중등부(세미나리)와 대학부를 운영해야 합니다. 우리의 활동의 결과는 전세계에 그 영향을 미칩니다. 이러한 모든 것은 교회의 사업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영감 받은 기업체 이상의 것입니다. 그것은 사회 조직보다 더 의미 있는 것입니다. 기업의 조직이나 사회 조직은 단지 교회의 사업의 한 가지 목적을 수행하기 위한 수단일 뿐입니다.

그 목적은 하나님 아버지를 도와 인간에게 불사 불멸과 영생을 가져다 주는 그분의 사업과 영광을 수행하는 데 있어 그분을 돕는 데 있습니다.(모세서 1:39 참조)

우리가 힘들여 대항해야 할 세력들은 막강합니다. 그것들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우리 자신의 힘보다 더 강한 것을 필요로 합니다.

가정의 가장들에게, 지도자의 위치에 계신 분들에게, 우리 교회의 많은 교사와 선교사들에게, 저는 이러한 모든 분들에게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이 하시는 모든 일에 있어서 영을 먹이시고 영혼을 살찌우십시오. "의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

(고린도후서 3:6 참조)입니다.

교회의 여러 다양한 모임들을 조직하고 인도하시는 저를 포함한 수천 명의 스테이크, 선교부, 지방부, 와드 그리고 지부의 지도자 및 역원 여러분께 높은 영적인 수준의 노력을 계속하도록 끊임 없이 주님의 영감과 그분의 성령의 동반을 구하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그와 같은 기도는 응답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그 약속은 다음과 같은 계시의 말씀으로써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서는 자기 성령으로써, 참으로 말로 다할 수 없는 성신의 은사로써... 지식을 너희에게 주시리라."(교리와 성약 121:26)

우리의 모임을 인도하는 것에 관하여 주님께서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과 계시에 따라 성신이 인도하시는 대로"(교리와 성약 20:45) 모임을 인도하시도록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서는 다시 한 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의 교회의 장로들은 처음부터 또 이후 어느 때까지나 성령이 인도하시는 대로 모든 집회를 사회하도록 허락

되었느니라."(교리와 성약 46:2)

그와 같은 원리들에 더하여 다음과 같은 오래 전의 말씀에 대해 깊이 생각해 봅시다. 교회에 들어온 개종자들에 관하여 모로나이는 다음과 같이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저들이 침례를 받은 뒤에는 성신의 능력으로 정결하게 되어, 예수 그리스도 교회의 백성으로 헤아림을 받았고, 하나님의 선하신 말씀으로 양육되어 이를 바르게 지키며 깨어서 항상 기도하며 저들의 신앙을 이루어 주시며 온전케 하시는 이이신 그리스도의 공덕만을 의지하도록 저들의 이름이 기록되나니,"(모로나이서 6: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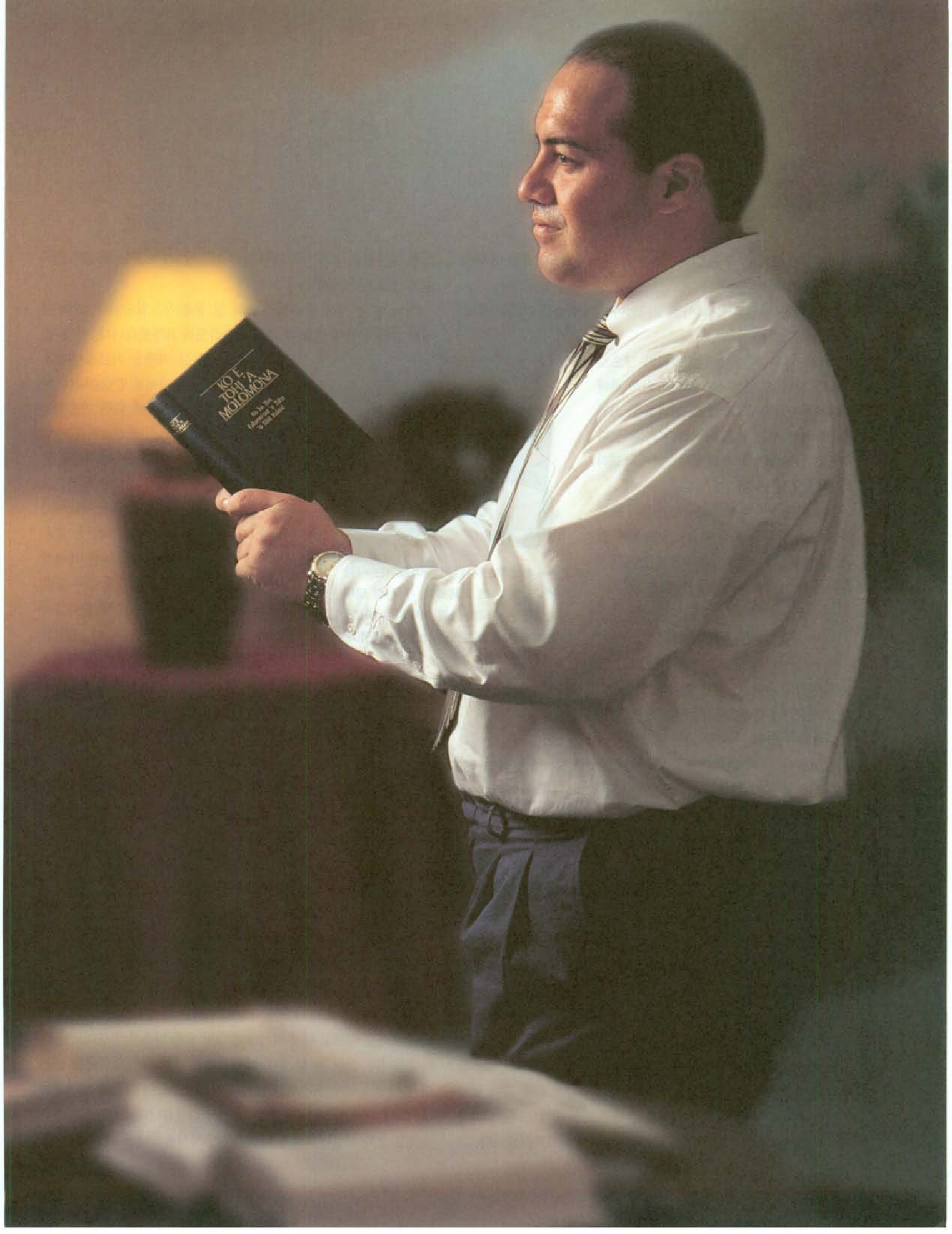
형제 자매 여러분, 모든 모임을 인도하면서 우리는 결코 없어서 아니할 생명의 양식으로 하나님의 자녀들을 먹이는 경험을 해보도록 합시다.

영으로 가르침

저는 부모님과 선교사를 포함한 복음을 가르치는 모든 분들에게 여러분 각자에게 바로 주님께서 하셨던 그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가정의 가장들에게, 지도자의 위치에 계신 모든 분들에게, 우리 교회의 많은 교사와 선교사들에게, 저는 이러한 모든 분들에게 다음과 같은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이 하시는 모든 일에 있어서, 영을 먹이시고 영혼을 살찌우십시오.



니다. “그러므로 나 주는 너희에게 이를 묻노니, 곧 너희는 어떠한 성직에 성임되었느냐?”

그런 다음, 주님은 “보혜사로 말미암아 나의 복음을 전하는 직책”이라고 대답하셨습니다.

그러고 나서 주님께서는 우리가 영으로 복음을 전할 때 일어나는 놀라운 일에 관해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전파하는 자와 받아들이는 자는 서로 이해하니, 둘은 다 덕으로 인도되며 함께 기뻐하느니라.”(교리와 성약 50:13~14, 22)

가르치는 사람과 받아들이는 사람이 서로 이해하고 두 사람 모두 덕으로 인도되며 함께 기뻐하는 것, 바로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하는 모든 노력의 목적이 아니겠습니까?

말일성도 군목 이야기

저는 신앙심이 깊고 헌신적이며 용기 있는 말일성도 군목 한 분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는 30여 년 전, 베트남 전쟁 중에 남베트남의 중부 고원 지대에서 1년 이상 복무하고 있었습니다. 베트남의 여러 지역처럼 전투가 치열하고 사상자가 많은 지역에 있었습니다. 그는 두 차례나 부상을 당했습니다. 또 그는 많은 부대원들이 부상당하거나 목숨을 잃은 것을 보았습니다. 부대의 부대원들은 그를 사랑하고 존경했으며, 그의 상관들도 그에게 경의를 표하였습니다.

그는 처음부터 교회 회원은 아니었습니다. 어렸을 때 미국 남부에 살았던 그는, 가족 모두가 시골의 작은 교회에 참석하고 함께 성경을 공부하는 종교적인 가정에서 성장했습니다. 그는 경전에서 읽었던 성신의 은사를 받기 원했지만, 그러한 것은 디 이상 불가능하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러한 소망을 결코 버릴 수 없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가장 바라던 그 소망을 이루기 위해 노력해 보았지만, 결코 그 해답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군 복무 기간 동안, 그는 감옥을 지키는 간수가 되었습니다. 캘리포니아에 있는 한 감옥의 감시 초소에 앉아 있으면서, 자신의 부족함에 대해 깊이 생각하였습니다. 그런 후에 그는 성신의 은사를 받을 수 있도록, 그리하여 그의 영혼의 굶주림을 채워 주시도록 주님께 기도드렸습니다. 그

러한 굶주림은 그가 이제까지 들어왔던 설교만으로는 완전히 충족될 수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어느 날 두 명의 젊은이가 그의 집 문을 두드렸습니다. 그의 아내 내는 남편이 집에 있을 때 다시 방문하도록 요청했습니다. 이 두 젊은이는 성신으로 그 가족을 가르쳤습니다. 약 보름 후에, 그들은 침례를 받았습니다. 저는 그에게서 성신의 권세에 의한 가르침을 받았을 때, 자신을 가르쳤던 선교사들과 함께 덕으로 인도되고 기뻐하였다는 간증을 들었습니다. 그와 같은 놀라운 일을 시작으로 하여, 그는 성신의 은사로서 죽은 자들에게 평화를 가져다 주고, 사랑하는 이들을 잃은 사람들을 위로하고, 부상당한 자를 축복해 주고, 위축된 사람들에게 용기를 주며 믿음이 없는 사람들에게 믿음을 가져다 줌으로써 진리와 빛의 광채를 발산했습니다. 성령의 영감 아래 행해진 가르침의 열매는 참으로 감미롭습니다. 그것들은 영을 먹이고 영혼을 살찌우게 하는 것입니다.



가르치는 사람과 받아들이는 사람이 서로 이해하며, 두 사람 모두 덕으로 인도되며 함께 기뻐하는 바로 이것이 우리가 하는 모든 노력의 목적이 아니겠습니까?

부모를 위한 성령

저는 가족의 가장 되시는 부모님들에게 특별한 권고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는 가정의 영성을 강화시키는 민감하고 중대한 일에 있어서 성신의 인도를 필요로 합니다.

전세계에서 발견되는 수많은 비극들, 그러한 비극들은 바로 가족 간의 불화가 존재하는 가정에 그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몇 년 전, 어느 날 오후에 저의 사무실로 전화가 한 통 걸려 왔습니다. 상대방은 젊은이였는데, 그는 매우 흥분된 목소리로 나를 만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그에게 그날 오후에는 약속이 있기 때문에 다음날 방문해 줄 수 있는냐고 물어 보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꼭 그날 오후에 만나고 싶다고 대답하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에게 오라고 이르고 나서 비서에게 그날 오후 약속을 변경하도록 부탁했습니다. 그는 몇 분 후에 사무실로 찾아왔는데, 얼굴에는 근심의 빛이 가득했고 초조하고 안절부절하는 모습이 역력해 보였습니다. 그의 머리카락은 길었고 외모는 초라했습니다. 저는 앉으라고 권하고 그와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제가 그

의 문제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그를 돕고자 하는 소망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확신시켰습니다.

그는 슬프고도 비참한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그는 심각한 상태에 직면해 있었습니다. 그는 범죄를 저질렀고 순결하지 못한 생활을 했으며, 자신의 삶을 어려운 궁지로 몰아넣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힘으로는 도저히 감당하지 못하는 그러한 문제에 대해 도움을 필요로 했습니다. 그리고 그 도움을 저에게 요청했습니다. 저는 그의 아버지가 그의 문제에 대해 알고 있는지 물어 보았습니다. 그는 아버지가 자신을 미워하고 있기 때문에 아버지에게 말씀드릴 수 없다고 대답했습니다. 저는 그의 아버지를 우연히 알게 되었는데, 그가 자신의 아들을 미워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아들을 사랑하고 있었고, 아들에 대해 근심하며 슬퍼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의 화를 다스릴 수 없었습니다. 그는 아이들의 잘못에 대해 벌을 줄 때마다, 자신의 감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결국 자신뿐 아니라 아이들의 마음도 상하게 했던 것입니다.

자신의 아버지를 적으로 생각할 정도로 아버지와 사이가 멀어진 한 아들이 제 책상 맞은편에 앉아 흐느끼며 비탄에 젖어 있는 것을 바라보며, 저는 요셉 스미스를 통하여 계시된 위대한 진리의 말씀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것은 신권의 영을 다스리는 진수에 대한 말씀인데, 저는 우리의 가정을 다스리는 데 그 말씀들이 적용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거짓 없는 사랑’의 힘

“... 어떠한 권력이나 세력도 유지될 수 없고 또 되어서도 아니 되나니, 다만 설득과 오래 참음과 온화함과 온유함과 거짓 없는 사랑과,

“친절과 깨끗한 지식으로 할 것이니, 이것들은 위선이나 간교함이 없어 사람을 심히 크게 만드느니라.”(교리와 성약 121:41~42)

저는 이와 같은 간결하고도 훌륭한 말씀이 부모로서 우리가 행해야 하는 태도에 대한 것이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한 말씀들은 우리가 적절하지만 민감한 징계는 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까? 또는 우리가 꾸짖지 않아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다음과 같은 말씀들을 주목해 보십시오.

“성령에 감동되었을 때에는(성신은 다투며 꾸짖는 곳에 입하는가? 아니오.) 날카롭게 꾸짖을 것이나, (언제 꾸짖을 것인가? 화를

낼 것인가? 감정을 억누를 것인가? 아니오.) 후에는 꾸짖은 자에게 더 큰 사랑을 나타내 보여 저가 너를 자기 원수로 여기지 않게 하라.

“그리하여 저로 네 성실함이 죽음의 사슬보다 더 강한 줄 알게 하라.”(교리와 성약 121:43~44)

성령, 가정을 다스리는 열쇠

가정의 가장이 되시는 형제 자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성신의 인도로 가정을 다스리는 열쇠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모든 부모들에게 권해 드리며, 만약 여러분께서 주님의 말씀대로 가족을 다스린다면, 여러분은 기뻐하게 될 것이며 여러분이 책임지고 있는 가족들도 기쁨을 얻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조금도 주저하지 않고 약속드립니다.

이 영감에 찬 말씀은 복음의 영적인 근간이 되는 것이며, 또한 우리 신앙의 기본 구조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교회의 모든 활동이나 우리 가정의 모든 모임에서 그 말씀들을 발전시켜 나가도록 우리를 도우십니다.

저는 1세기도 훨씬 전에 브리감 영 대관장이 드렸던 그 기도에 대해 다시 언급하고자 합니다. “영원하신 하나님 아버지시여, 당신의 교회와 왕국의 모든 신권 소유자 및 권능을 지닌 분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그들이 그들의 집이나, 부름이나, 직업이나, 이웃 및 그들의 모든 행동과 교제에서 자신의 모든 의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성령의 인도를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

가정 복음 교사를 위한 제언

1. 세상은 영의 양식에 굶주려 있습니다.
2. 우리는 우리의 가족들을 다스리고 가르치는 데 성령을 필요로 합니다. 또한 교회의 행정상의 책임에 있어서나, 공과 시간에 복음을 가르치거나, 세상에 복음을 전할 때에도 우리는 성령을 필요로 합니다.
3. 우리는 관련된 당사자들이 “다 덕으로 인도되며 함께 기뻐”(교리와 성약 50:22)할 수 있도록 영을 필요로 합니다.
4. 성령의 동반을 구하는 우리의 의로운 기도는 응답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사샤 스트라코바



마빈 케이 가드너

사샤 스트라코바는 열세 살이 되던 해에, 하나님에 대해 알고 싶은 간절한 소망을 가지고 있었다. 그녀는 몇 달 동안이나 이렇게 기도하였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당신을 더욱 많이 알고 싶습니다.”

주님은 그녀의 기도에 응답해 주셨다. 어느 날, 두 명의 선교사들이 학생들에게 연설해 달라는 초대를 받고 러시아의 상트페테르부르크에 있는 그녀의 학교에 왔다. 그 선교사들이 전한 말씀 중에는 그녀를 깜짝 놀라게 하는 내용이 담겨 있었고 그녀의 마음을 온통 사로잡았다. “인간이 존재하는 기쁨을 갖기 위함입니다.”(니파이 이서 2:25) 이것은 참으로 범상치 않은 말이었다. “그러나 저는 그것을 믿었어요, 저는 이생에서 기쁨을 갖는 방법을 이 선교사들이 알고 있다고 느꼈어요.”라고 사샤는 말한다.

그녀는 들뜬 마음으로 서둘러 집으로 돌아와 어머니께 그녀가 알게 된 것을 말씀드렸다. 그러나 최근 이혼한 뒤 혼자서 모든 일을 꾸려 가느라 지쳐 있었던 어머니는 그녀가 전하는 소식과 그녀의 열정을 지나쳐 버렸다. 사샤는 자신과 어머니가 함께 살고 있는 곳에서 멀리 떨어져 있긴 하

지만, 그 지부의 주일 모임에 참석할 수 있도록 허락해 달라고 졸랐다. “엄마는 ‘왜 그렇게 멀리까지 가야 하니?’ 하고 물었어요. 하지만 저는 ‘엄마, 저는 이 교회에 가고 싶어요.’라고 말했어요.”

그 다음 일요일, 사샤는 버스와 지하철을 타고 혼자 그 지부에 참석했다. “저는 사랑이 그 곳에 함께 하는 것을 보았어요. 저는 사람들에게서 생동감이 넘치는 것을 느낄 수 있었어요. 저는 이제 막 하나님에 대해서 알기 시작했지만, 그들이 느끼는 것들을 저도 느끼고 싶었어요.”라고 그녀가 말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그녀는 어머니께 선교사들을 집에 초대해도 되는지 여쭙었다. “어머니는 ‘아니, 우리에게 선교사가 필요 없단다.’ 하고 말씀했어요. 하지만 저는 ‘엄마, 제가 매일 바닥 청소할게요. 제발 그분들이 올 수 있도록 허락해 주세요.’라고 졸랐답니다.” 한 달 동안 청소를 한 뒤, 사샤는 선교사들이 와도 좋다는 허락을 받았다. 선교사들이 그녀의 아파트에 왔을 때, 그 방에 열세 살 난 어린이들로 가득한 것을 보고 깜짝 놀랐다. 사샤는 자기 반 아이들을 모두 초대했던 것이다. 3개월 후 그녀와 친구 두 명이 침례를 받았다.

“오, 그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싶어 해요!”

사샤는 복음이 주는 축복들을 어머니와 함께 누리고 싶었다. “저는 어머니를 위해 금식하고 기도했어요. 매일 밤 저는 어머니 침대 위에 쪽지를 남겨 놓았어요. ‘사랑하는 엄마, 하나님께서는 엄마를 아주 많이 사랑하세요. 그분께 꼭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오늘 엄마를 축복해 주실거예요.’” 사샤는 어머니와 함께 가정의 밤을 가지며 결국에는 침례 받게 되기를 소망하고 있다.

사샤가 열네 살이던 어느 날, 한 개신교에서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모임에 참석하라고 광고하는 전단을 보게 되었다. 사샤는 “아, 그들도 하나님에 대해서 알기를 원하는구나!”라고 생각했다. 사샤는 이것이 진리를 찾고자 하는 진지한 사람들과 복음을 나눌 수 있는 온전한

사샤는 문화의 도시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기쁨과 목적을 발견한다.
위 왼쪽: 펠러스 광장의 트라이엄프 아치
위 오른쪽: 부활의 교회
오른쪽: 운하 위의 다리에서





왼쪽: 청소년 대회에서 워크숍을 하고 있는 사사와 친구



오른쪽: 지부 상호부조회 회장인 사사는 자매들의 가정을 방문하는 것을 좋아한다.

기회라 생각하고, 혼자서 그 모임에 찾아 갔다.

모임 중에 사람들로 가득 찬 방 앞으로 용감하게 걸어 나아가 구세주와 회복에 대한 간증을 전했다. “저는 그들에게 그것이 참되다는 것을 온 마음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어요. 그리고 그들을 교회에 오도록 초대했어요.” 1992년의 그날 이후 사사는 몇몇 친구들을 교회로 이끌 수 있었다.

세상의 유혹들

사사의 삶에 있어서도 세상적 유혹이 그녀를 사로잡을 때가 있었다. 그녀는 춤을 사랑했고 아주 어렸을 때부터 직업 무용수가 되는 훈련을 받아 왔다. 그녀는 침례 받은 몇 달 뒤에 상트페테르부르크에 있는 한 전문 현대 무용단의 단원이 되었다. 대부분의 무용단원들이 성인들이었다. 교회 회원은 한 사람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아무도 교회 표준대로 살지 않았다.

사사가 열다섯 살이 되던 해에, 그 무용단은 스위스로 공연 여행을 떠나기 위한 연습을 시작했다. 일생에 한 번 올까 말까 한 기회였다. “저는 매일 여덟 시간 가까이 연습을 했어요. 모든 힘을 다해 이 공연을 준비하고 있었어요.”라고 사사는 말한다. 몇 달 동안 오직 춤에만 몰두하던 나머지, 사사는 어머니와 학교, 교회로부터 위협스

러울 정도로 멀어지고 있었다.

다행히 그녀에게는 아직도 애나라는 말 일성도 친구가 있었다. 하루는 교회 회원이었던 애나의 어머니가 이런 말씀을 했다. “사사, 그만두거라! 그런 환경 속에서 순결하게 생활할 수 있겠니? 그 사람들은 지혜의 말씀도, 또 순결의 법도 지키지 않아. 성신이 계속 너와 함께 하시리라 생각하니?”

이 말이 사사의 마음에 와 닿았다. “전 갑자기 제가 영적 암흑 속에 갇혀 있다는 느낌에 두려움을 느꼈어요. 애나와 저는 곧 무릎을 꿇고 기도를 시작했지요. 그 기도 후에 어떤 빛이 우리를 감싸는 듯했어요. 저는 무용단을 떠나야 한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하지만 어떻게 무용단을 떠날까? 다른 무용단원들이 실망할 텐데... 사사는 신권 축복을 부탁했다. 그런 뒤 애나와 함께 자신의 결정을 전하려고 무용단장을 찾아갔다. 사사는 연습장에 도착했을 때 담배를 피우고 있던 무용단장이 “빨리 옷을 갈아입고 리허설 준비를 해.”라고 말한 것을 지금도 기억하고 있다. “저는 더 이상 춤을 추지 않겠다고 말했지만 그분은 저의 말을 듣지 않았어요. 그저 네가 감히 어떻게 그럴 수 있니? 어떻게 우릴 배신할 수 있어!”라고 말씀했죠. 저를 잡고 다른 무용단원들이 있는 곳으로 데려갔어요. 저는 단장에게

이야기 해 보려 했지만 힘이 쭉 빠지는 느낌이었고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다행히 애나는 아무 말 하지 않고 자신의 친구를 위해 기도하며 그녀 옆에 있어 주었다. “갑자기 전 단원들에게 말할 수 있는 힘을 느꼈어요.” 사사는 자신이 떠나야 하는 이유를 그들에게 설명했다. “그들 모두가 제 친구들이었기 때문에 몹시 힘들었어요.”

사사의 마음이 굳어진 것을 깨달은 무용단장은 다른 무용수를 정해 주고 사사에게 알고 있는 것을 모두 가르쳐 주라고 하였다. “춤추기 시작했어요. 그 춤을 마지막으로 춘다고 생각하니 눈물이 흐르더군요.”라고 사사는 말한다.

집에 도착했을 때 사사는 완전히 지쳐 있었다. “그렇지만 제가 이겼다는 것을 알 수 있었어요. 그날 밤 저는 기도하였고, 그 이후로도 계속 매일 밤 기도하고 있습니다. 때때로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 우리가 가장 사랑하는 것들을 희생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배웠어요. 진정 제 삶이 바뀌기 시작한 것은 바로 그 순간부터였습니다.”

사사는 어머니와 더욱 가까워졌고, 고등학교를 졸업한 뒤, 자신이 가진 춤의 재능을 나눌 수 있는 다른 방법도 찾을 수 있었다. 최근에 그녀는 상트페테르부르크에 있는 한 문화 예술 대학에서 무용학을

전공하여 학위를 받았다. 가장 중요한 것은 그녀의 마음을 다시 주님께로 돌렸다는 것이다.

“우리가 한 가족처럼 되어야 한다는 것을 알았어요.”

열여섯 살 때 사사는 지부 청년회장단 제1보좌로 부름 받았다. 친구 애나가 당시 청년 회장이었다. 지부에서 활동적인 청년들은 단지 이 둘뿐이었다. 하루는 교회 지도자 한 분이 이렇게 말씀했다. “너희 지부에는 많은 청년들이 소속되어 있는데 너희들만 나오는구나.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봉사하게 하려고 부르신 거야.”

그래서 사사와 애나는 봉사하였다. 한 달 내에 거의 열다섯 명의 청년이 활동 회원이 되었다. 몇 달 후에는 사사가 청년 회장 부름을 받게 되었다. 그 뒤 열일곱 살 나이에 사사는 지방부 청년 회장단 제1보좌가 되었다. “서처럼, 청년들 중에 대부분이 가족 중에 혼자만 교회 회원이에요. 그래서 전 우리가 한 가족처럼 되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전 우리가 진정한 친구들이 되기를 소망했어요. 그러면 우리 모두가 주님께 충실할 수 있을 테니까요.”

소녀들은 주중에 우정 증진과 여러 가지 봉사 활동을 하기 위해 자주 만났다. 그들은 번갈아 공과를 준비했다. 그들은 지부 세미나리에도 참석했다. 함께 산책을 하기도 하고 계속적으로 다른 활동 등에도 참여했다. “대부분의 청년들은 아직도 활동적으로 교회 생활을 하고 있어요. 강한 간증을 가지고 교회 부름에 봉사하고 있습니다. 우린 여전히 친한 친구들이지요.”라고

사사는 말한다.

“그건 아주 쉬울 거야.”

사사는 열여덟 살 때 지부 상호부조회 회장으로 봉사하도록 부름 받았다. “처음에 저는 ‘자신 있어. 난 해낼 수 있을 거야. 그건 아주 쉬울 거야.’라고 생각했지요. 나중에 지부의 자매님들 수가 아흔 명이 넘고 대부분이 저보다 연장자들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저 혼자로서는 어떠한 일도 할 수 없었어요.”

그녀는 자신을 겸손하게 하고 주님께 도움을 구하였다. 지부장은 그녀가 자매들끼리 우정으로 뭉칠 수 있도록 힘쓰라고 권하였다. “우리는 방문 교육이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느꼈습니다.”

성탄절의 영

수세기 동안 러시아에서는 성탄절을 기념하지 않았다. 그러나 사사는 많은 기도 후에 구세주의 탄생을 기념하는 이 날의 중요성을 강조해야 한다고 느꼈다. “저는 모든 자매님들이 성탄절의 영을 느낄 수 있으면 하고 바랐어요.” 사사는 말한다. 일 모임을 통해서 자매들은 직물로 동물 인형을 만드는 법을 배웠다. 그런 뒤 작은 그룹을 지어 지부 내 50가족이 넘는 모든 회원들을 방문하여 성탄절 메시지를 서로 나누고 아이들에게는 가사 모임에서 만든 인형들을 전해 주었다.

사사는 많은 준비와 다른 가족 방문 등으로 너무 바빴기 때문에 누군가가 자신을 방문하리라고는 생각도 하지 못했다. “그러나 그 해 겨울 중 가장 추웠던 12월

23일 밤에 저희 아파트에 우리 지부 상호부조회 회원 네 명이 초인종을 누르고는 들어서는 것이었어요. 그 분들 중 한 명은 1년 반 동안이나 활동을 하지 않은 분이었어요. 이 분들은 벌써 여러 집의 자매들을 방문하고 나서 저의 집을 찾아온 것이었어요. 너무 추운 밤이어서 그 분들은 땀을 흘려 있었어요. 그런데도 촛불을 들고 저와 함께 찬송가 ‘고요한 밤, 거룩한 밤’을 불렀어요. 그 분들은 제게 참으로 따뜻한 말들과 일 모임 때 만들었던 성탄 카드를 남겨 놓고 돌아갔지요. 저는 그들에게서, 그리고 하나님에게서 많은 사랑을 느낄 수 있었답니다.”라며 사사는 기억을 떠올린다.

그 후 많은 자매들은 사사에게 성탄절 방문들을 통해 느낀 큰 즐거움에 대해 이야기하였다. “저에게 경험담을 들려주던 그들에게서 강한 빛과 열정에 가득 찬 느낌을 가질 수 있었답니다. 가장 추웠던 겨울 밤이었지만 저는 그분들에게서 따뜻함을 느꼈습니다.”

현재 스무 살인 사사는 지방부 상호부조회 회장단 제1보좌로 봉사하고 있다. 그녀는, “항상 무엇인가를 배우게 됩니다. 저는 쇠막대를 놓치지 않으려고 합니다. (니파이일서 11:25 참조) 저는 제 삶에 기둥이 되는 문헌경을 매일 읽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은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것입니다. 그분들이야말로 우리에게 영원한 행복을 가져다 주시는 유일한 분들입니다. 그분들이 없는 제 삶은 상상할 수 없습니다.”라고 말한다. □

가족

가족 단위는 사회와 교회의 기초가 될 뿐만 아니라 영생을 향한 우리 소망의 기초도 됩니다.

헨리 비 아이어링 장로

십이사도 정원회

예언자 요셉 스미스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회복된 이래,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는 단 네 차례 선언문을 발표했습니다. 다섯 번째 선언문은 이 앞의 선언문이 발표된 지 15년 만에 발표되었습니다.[이 선언문들은 다니엘 루드로우 편집, *물론 백과 사전*(1992년) 3:1151~1157에 게재되어 있음] 그것은 150여 년의 역사를 지닌 교회가 이룩해 온 발전을 보여 주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우리는 1995년 9월 23일, 다섯 번째로 발표된 가장 최근의 선언문의 주제가 하나님 아버지께서 강조하신 가족이라는 것에 대해 주목하면서 그 중요성을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엔사인*: 1995년 11월호, 102쪽, *성도의 빛*: 1998년 10월호, 24쪽 참조)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그분의 자녀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분은 우리의 주의를 관심으로 행복을 가져올 수 있거나, 우리의 무관심이 슬픔을 가져올 수도 있는 상황과 관련된 이 생의 중요한 문제들에 대해 우리에게 확실한 가르침을 주신 것입니다. 때때로 그분은 영감으로 어떤 사람에게 그와 같은 일들을 직접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나 그러한 방법 외에도 그분께서는 그분의 종들을 통하여 이러한 중요한 문제들에 대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실 것입니다. 예언자 아모스는 오래 전에 다음과 같이 기록하였습니다.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아모스 3:7)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영감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도 하나님의 종들의 말씀을 단지 귀기울여 듣기만 한다면, 자신들이 진리를 들

어 왔으며 경고를 받아 왔다는 것을 알 수 있도록 이와 같이 행하시는 것입니다.

가족에 관한 선언문의 제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족: 세상에 전하는 선언문 -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 대관장단 및 십이사도 평의회.”

이 제목에서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볼 가치가 있는 세 가지 사항이 있습니다. 첫째는 가족이라는 주제입니다. 둘째는 그 대상이 온 세상의 사람들이라는 데에 있습니다. 그리고 셋째는 선언문을 발표하는 주제가 우리가 예언자, 선견자 및 계시자로 지지하는 분들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든 것은 가족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가를 분명하게 보여 준다는 것과 선언문이 말하는 내용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님께서 “내 자신의 음성이거나 내 종의 음성이거나 다 같으니라.”(교리와 성약 1:38)라고 말씀하셨던 주님의 약속을 포함하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선언문에 나와 있는 말씀들에 대해 알아보기 전에, 우리는 선언문의 제목이 본문의 말씀들을 이해하는 데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말해 주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 주목해 봅시다.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가족에 관한 몇 가지 흥미로운 사실만을 말씀하시기를 원하지 않으시고, 가족이 어떻게 되어야 한다는 것과 왜 그래야 되는지에 대해 말씀해 주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하나님 아버지와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가 가족으로서 그분들과 영원히 함께 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우리가 그분들과 같이 되기를



“전세에서 영의 아들과 딸들은 하나님을 그들의 영원하신 아버지로 알고 경배하였으며, 그분의 계획을 받아들였다. 그 계획에 의하여 그분의 자녀들은 육신을 얻고 지상 생활의 경험을 통하여 완전을 향해 발전하여 궁극적으로 영생의 상속자로서 자신의 신성한 운명을 실현할 수 있게 되었다.”

일렉트로닉 일러스트레이션: 스킵 웰치, 사진 촬영: 크레이그 다이몬드, 13쪽: 가족 사진: 마이클 맥레이, 그림: 로버트 티 배렛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그분들의 의지가 담긴 다음과 같은 간단한 말씀을 통하여 그분들이 그렇게 원하시는 것이 참됨을 알 수 있습니다. "인간에게 불사 불멸과 영생을 가져다 주는 일, 이것이 바로 나의 사업이요, 영광이니라."(모세서 1:39)

영생: 도달할 수 있는 목적지

영생은 하나님 아버지와 같이 되는 것을 의미하며, 또한 행복과 기쁨 가운데 가족으로서 영원히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물론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위해 원하시는 것을 행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능력 이상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만약 자신의 부족함을 느낀다면, 그러한 느낌은 우리가 보

다 쉽게 회개할 수 있도록 해주며, 주님의 도움에 의존할 준비가 될 수 있도록 해줍니다. 선언문이 모든 세상 -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과 정부 - 에 대해 적용될 수 있다는 사실은 우리가 부족하다는 느낌에 휩싸일 필요가 없다는 확신을 가져다 줍니다. 우리가 누구든지, 또는 우리가 처한 상황이 얼마나 어렵든지 간에, 만약 우리가 영생의 축복을 얻기에 합당하다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결코 우리의 능력 밖의 일이 아닐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래 전에 도저히 불가능하게만 보였던 과제에 직면했던 한 젊은이의 다음과 같은 말은 진정 참된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에게 무엇이든 명하시는 대로 이룰 수 있는 방안을 미리 마련치 아니하시고는 명하지 않으심을 제가 아오니."(니파이일서 3:7)

우리는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 것인지 알 수 있도록 신앙을 가지고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기도의 응답을 얻고 난



"거룩한 성전에서 행해지는 모든 신성한 의식과 성약은 개개인을 하나님의 면전에서 돌아갈 수 있게 하며 가족을 영원히 하나로 결속시켜 준다."

후에는 순종할 결심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자신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알 수 있으며,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마련해놓으신 방편에 대해서도 분명히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선언문에서 언급된 가족에 관한 내용을 읽게 될 때, 우리는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에 관련하여 마음에 찾아오는 특별한 느낌을 기대해야 합니다. 실상 우리는 그러한 느낌을 기대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와 같은 느낌에 따라 행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질 수 있습니다.

선언문은 다음과 같이 시작됩니다.

“우리 딸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의 대관장단과 십이사도 평의회는 남녀간의 결혼은 하나님이 제정하여 주신 것이며, 가족은 창조주께서 그의 자녀들의 영원한 운명을 위하여 마련하신 계획의 중심이라는 것을 엄숙하게 선언한다.”

우리 스스로를 그와 같은 말씀을 처음으로 듣고, 그 말씀이 참되다는 것을 믿는 어린아이처럼 생각해 보도록 합시다. 이러한 방법은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읽거나 들을 때 취할 수 있는 좋은 태도입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누가복음 18:17)

작은 어린아이는 “남녀간의 결혼은 하나님이 제정하여 주신 것”이라는 말씀을 들을 때 안전함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그 어린이는, 서로 별개지만 완전한 보완 관계인 아버지와 어머니의 사랑을 모두 받고자 하는 열망이 존재한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와 같은 열망은 영원한 계획, 곧 행복의 계획의 일부이기 때문입니다. 그 어린이는 또한 하나님 아버지께서 어머니와 아버

지가 어려움을 해결하고 서로 사랑하도록 도와주실 것이라는 사실을 알으로써 안전함을 느끼게 됩니다. 물론 그들이 하나님 아버지의 도움을 구하고 스스로 노력할 때에만 도움을 주실 것입니다. 자신의 부모와 가족을 도와주시도록 간구하는 전세계의 어린이들의 기도는 하나님께 전달될 것입니다.

우리가 마치 작은 어린이들인 것처럼, 그들과 같은 태도로 선언문의 다음 구절을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모든 인간, 즉 남자와 여자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 사람은 모두 하늘 부모의 사랑하는 영의 아들과 딸이며, 따라서 각각 신성한 품성과 운명을 지니고 있다. 남녀의 성별은 각 개인의 전세와 현세와 영원에 걸친 개인의 신분과 목적을 결정하는 본질적인 특성이다.

“전세에서 영의 아들과 딸들은 하나님을 그들의 영원하신 아버지로 알고 경배하였으며 그의 계획을 받아들였다. 그 계획에 의하여 그의 자녀들은 육신을 얻고 지상 생활의 경험을 통하여 완전을 향해 발전하여 궁극적으로 영생의 상속자로서 자신의 신성한 운명을 실현할 수 있게 되었다. 하나님의 행복의 계획은 가족 관계를 무덤 너머까지 계속되게 한다. 거룩한 성전에서 행해지는 신성한 의식과 성약은 개개인을 하나님의 면전으로 돌아갈 수 있게 하며 가족을 영원히 하나로 결속시켜 준다.”

선언문을 읽을 때뿐 아니라 우리의 전생애에 걸쳐, 이러한 진리의 말씀을 이해하는 것은 우리가 보다 쉽게 어린아이와 같이 순수함을 느끼게 해줄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늘 부모님과 함께 하는 특별한 가족의 자녀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바로 우리를 잘 아시고 사랑하시는 하늘 부모님을 모시고 하늘의 가정을 구성하는 아들들이요, 딸들이었다는 것을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것보다 훨씬 오랫동안 그러한 가족 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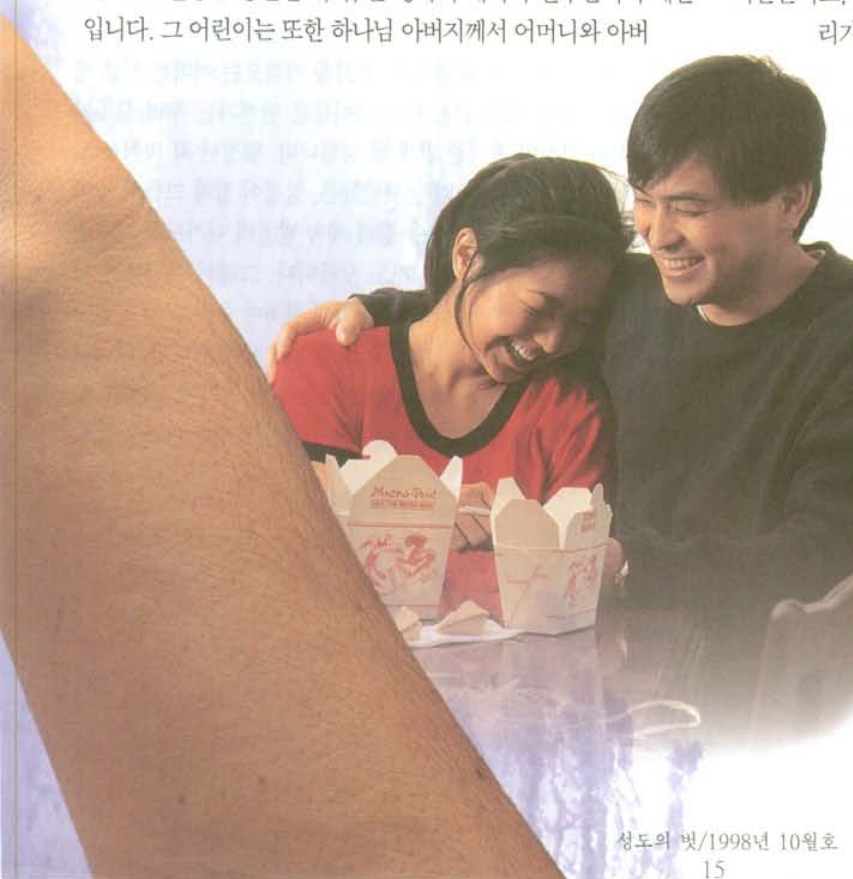


사진 촬영: 월턴 앤더슨

계를 이루어 왔습니다. 우리는 또한 우리가 우리의 성별로 인해 전 세계에서 특별한 재능을 지닌 남자와 여자였다는 것을 알고 있으며, 결혼하여 하나가 되는 기회는 우리가 영원한 행복을 얻는 데 필수적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이 지상에 있지만 사후에 아름다운 처소에서 하늘 부모와 다시 함께하는 그러한 가정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때는 더 이상 아들이요 딸로서만 아니라, 남편과 아내로서, 아버지와 어머니로서, 할아버지와 할머니로서, 그리고 손자와 손녀로서 하나가 되어 영원히 함께하는 사랑하는 가족이 될 것입니다.

그러한 것들을 머리에 그려 보게 될 때, 우리는 결코 다음과 같은 생각들로 유혹 받을 수 없을 것입니다. "아마 나는 영생을 좋아하지 않을지도 몰라. 나는 사후에 다른 장소에서 행복해 할지도 모르지. 왜냐하면 가장 낮은 등급의 왕국조차도 우리가 사는 이 지상의 어떤 것보다 더 아름답다는 말을 듣지 않았는가 말이야."

그와 같은 부정적인 태도를 극복하기 위하여, 우리는 우리의 마음으로부터만 아니라 가슴으로 영생의 목표를 갖고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은 가족으로서 영생을 누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든 일이 쉽게 잘되어 영생에 이르게 되는 것을 원하지는 않습니다. 또한 우리는 단지 영생에 가까이 접근하는 것처럼 보이는 어떠한 것을 원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바로 영생을 원하는 것입니다. 비록 그 영생을 얻기 위해 어떠한 노력과 고통과 희생의 대가를 치르더라도 말입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영생을 우리의 결연한 결심으로 가 아니라, 단지 희망으로만 갖고 있으려는 유혹을 받을 때마다, 우리는 제가 최근에 보았던 한 건물에 관해서 생각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메사추세츠 주의 보스턴에 간 적이 있었습니다. 추억을 더듬으며, 저는 아내인 캐슬린을 처음 만났을 때 살았던 예전의 그 하숙집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그것은 오래 전의 일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 하숙집이 아주 초라해졌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그 하숙집은 새롭게 페인트칠도 되어 있었고 안팎으로 깨끗하게 단장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그 하숙집 주인이 하숙생들에게 얼마나 잘해 주셨는지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저는 욕실이 딸린 큰 방을 혼자 사용하였는데, 가구며 이불이 제공되었고 청소와 세탁 그리고 1주일에 여섯 차례의 맛있는 아침 식사와 다섯 차례의 멋진 저녁 식사가 준비되었습니다. 그 식사는 정성이 듬뿍 담겨 맛있고 넉넉하게 제공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모든 것이 최소한의 비용으

로 가능했습니다. 우리는 하숙집 주인인 소피 아주머니를 "어머니"라고 불렀습니다. 매일 밤 열두 명의 학생들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것이 분명히 쉽지 않으셨을 텐데, 저는 소피 아주머니와 아저씨 내외분이나, 그분의 따님에게 그렇게 자주는 감사드리지 못했음을 이제서야 깨닫습니다.

이 오래된 하숙집에 널찍한 방들이 있고 최상의 서비스가 제공되며 하숙생들 또한 모범생들이지라도, 대부분 그 곳에서 오랫동안 살고 싶은 마음은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 지상에 오기 전에 사랑하는 부모와 자녀들이 함께하고, 우리가 영원히 함께 더불어 살아가야 할 우리의 운명인 가족에 관한 기억이나 생각들을 어렵듯하게나마 갖고 있다면, 그 하숙집이 멋진 곳일 수 있지만, 우리는 그 곳에서 독신인 상태로 영원히 살고 싶지는 않습니다. 가족들이 함께 거할 곳은 해의 왕국의 가장 높은 등급인 그곳 한 곳밖에 없습니다. 그곳이 바로 우리가 있기를 원하는 곳입니다.

가족으로서 영원히 함께한다는 선언문의 말씀들을 듣고 믿는 어린이는 가족 관계를 무덤 너머까지 지속시켜 주는 의식과 성약을 받을 수 있는 거룩한 성전을 갈망하는 삶을 시작하게 될 것입니다. 그 아이는 또한 합당하게 되기 위하여 노력하기 시작할 것이며, 그와 같은 의식을 받기에 합당한 미래의 동반자를 만나기 위하여 필요한 다른 여러 가지를 준비할 것입니다. 선언문의 말씀은 이와 같은 축복을 받기 위해서는 사람을 완벽하게 해주는 데 도움을 주는 몇 가지 경험들을 필요로 한다는 것을 분명하게 해줍니다. 어린이는 처음에는 깨닫지 못할지 모르지만, 인간의 힘으로 어떠한 결심을 하고 더욱 열심히 노력하는 것은 단지 완전을 향해 비틀거리는 과정이라는 사실을 곧 배우게 될 것입니다. 추가적인 도움이 필요한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나이가 들면서 죄 의식을 가져오는 어떠한 일을 행하려는 유혹이 올 것입니다. 모든 아이들은 언젠가는 우리 모두가 그런 것처럼 양심의 가책을 받게 될 것입니다. 엄청난 죄 의식을 느끼고 그것을 떨쳐 버릴 수 없는 사람들은, 영생이 점차 그들의 능력 이상의 것으로 보이는 완전함을 향해 계속 발전해 나가도록 요구한다는 것을 깨닫고서는 낙심할 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항상 완전함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에 관하여 우리가 알고 있는 바를 다른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겠다는 결심을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언젠가 그들은 우리가 원하고 있는 것을 원할 것이며, 그들은 우리가 그들의 형제요 자매였다는 사실과 우리가 영생에 이르는 길을

알고 있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우리와 그들이 만물을 사실 있는 그대로 보게 될 미래의 순간에 대해 생각해 본다면, 회원 선교사가 된다는 것은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인간의 생명의 존엄성

선언문의 다른 말씀들은 우리가 영생에 관한 것을 아는 데 있어서 특별한 의미를 갖게 할 것입니다. 그 말씀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이브에게 주셨던 최초의 계명은 그들이 남편과 아내로서 부모가 될 수 있는 잠재력에 관한 것이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자녀들에게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고 명하신 계명이 여전히 유효함을 선언한다. 더 나아가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출산의 신성한 능력은 남편과 아내로서 합법적으로 결혼한 남자와 여자 사이에서만 사용되어야 한다고 명하셨음을 선언한다.

“우리는 생명을 창조하는 방법을 하나님께서 정하여 주셨음을 선언한다. 우리는 생명이 존엄한 것이며,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에서 생명이 참으로 중요하다는 것을 분명히 밝힌다.”

그와 같은 말씀을 믿기 때문에, 어린이는 여러 가지 이유로 행해지는 몇몇 성인들의 잘못에 대해 쉽게 알아볼 수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 학식이 있고 사회 지도층에 있는 사람들은 빈곤이나 기아의 원인이 전세계의 어떤 특정 지역에 분포된 많은 인구 탓으로 돌리고 있습니다. 그들은 산아 제한이 인류에게 행복을 가져다 주는 것처럼 큰소리로 주장합니다. 선언문의 말씀을 믿는 어린이는, 주님께서 그분의 종인 예언자 요셉 스미스를 통하여 이에 대해 보다 분명하게 말씀해 주신 다음의 말씀을 듣기 전에도 이미 그렇게 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땅은 충만하고 충분하여 남는 것이 있나니, 참으로 내가 만물을 만들어 인간의 자녀들에게 이를 주어 자유의지대로 행동하게 하였느니라.”(교리와 성약 104:17)

“하나님께서 아담과 이브에게 주셨던 최초의 계명은 그들이 남편과 아내로서 부모가 될 수 있는 잠재력에 관한 것이었다.”




사진 촬영: 크레이그 다이몬드

만약에 부모들이 이 필멸의 세상으로 태러오는 자녀들이 이 지구 상의 자원들을 완전하게 고갈시킨다면, 우리의 어린이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남자와 여자에게 결혼하여 이 지상에서 번성하고 충만하라고 명하시지 않았을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지상에는 자원이 충분하고 여유가 있으므로, 가난과 기아의 원인뿐 아니라 인간의 행복에 대한 적은 결코 아이들의 출생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들은 자신의 자유 의지가 있으므로, 만약 그들이 단지 하나님께 기도로 구하고 그런 다음 순종한다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지구를 활용할 방법을 가르쳐 주시겠지만, 지구의 자원을 그렇게 사용하지 않은 것은 사람들의 실수인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순결하라는 계명과 출산의 능력은 오직 남편과 아내 사이에서만 사용되어야 한다는 계명이 제한적인 것이 아니라 오히려 확대되고 강화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될 것입니다. 자녀들은 이 지상 생활 동안뿐 아니라 영원히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업입니다. 영생은 이생에서 얻은 후손들과 영원히 함께 하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영생은 또 영원한 증식을 갖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권능을 지닌 하나님의 종에 의해 집행되는 성스러운 인봉 의식, 곧 성전에서 남편과 아내로서 결혼하는 사람들에게 주어질 약속을 보여 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 나의 종이 저들에게 행한 일은 무엇이든지 다 현세에서나 내





세에서도 영원토록 저들에게 이루어질 것이요, 또 저들이 세상을 떠날 때에 완전한 효력이 있어 그 곳에 자리를 정하신 여러 천사와 신들 앞을 지나가서 저마다 자기 머리에 결봉된 대로 각기 승영에 이르러 온갖 일에 영광을 누리리니, 그 영광은 완전한 최고의 영광이요, 영원토록 그 자손이 계속되는 것이니라.

“그때에 저들은 끝이 없음으로 신이 될 것이요, 계속되는 연고로 영원으로부터 영원으로 이르리라…” (교리와 성약 132:19~20)

이제 여러분은 출산의 능력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그와 같이 높은 표준을 정하여 주신 이유를 이해할

“하나님께서서 출산의 신성한 능력은 남편과 아내로서 합법적으로 결혼한 남자와 여자 사이에서만 사용되어야 한다고 명하셨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출산의 능력이 계속 유지된다는 것은 영생에 있어서 가장 핵심이 되는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들에게 영생의 가치에 대해 다음과 같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만일 내 계명을 지키고 끝까지 견디면 영생을 얻으리니, 이 은사는 하나님의 모든 은사 중 가장 큰 것이니라.”(요리와 성약 14:7)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존중하며 출산의 능력을 신성하게 여겨야 한다고 명하신 이유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 지상 생활 동안 그러한 경건한 느낌을 갖지 않는다면, 어떻게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와 같은 능력을 내세에서 우리에게 주실 수 있겠습니까? 현세에서의 가족 생활은 내세에서의 우리의 가족 생활을 준비하는 학교와 같습니다. 내세에서의 가족 생활에 대한 기회를 우리에게 주신 것은 창조의 목적이었으며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은 바로 엘리야의 방문에 관해 다음과 같이 기록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저는 조상에게 하신 약속을 자녀의 마음에 심을 것이요, 자녀의 마음을 그 조상에게 돌이키게 하리라. 그렇지 아니하면 주께서 오실 때에 온 땅은 황폐하게 되리라.”(요셉 스미스서 2:39)

이 필멸의 세상의 교실에서의 시험은 우리의 온 마음을 다해 이 지상 생활 동안 결혼하여 자녀를 가질 것을 소망하지만, 우리 중 어떤 사람들은 늦게 자녀를 갖게 되거나 자녀를 갖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와 같은 슬픈 경우조차도 공의로우시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와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축복이 될 경우가 있습니다. 영생의 축복을 위해 온전한 신앙과 소망으로 노력하는 사람은 어느 누구도 거절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인내와 신앙으로써 견딘 후에 찾아오는 기쁨은 얼마나 클 것이며, 그 감사함은 또 얼마나 클 것입니까!

가족 생활에서의 행복을 성취함

선언문에서는 현세에서의 우리 가족의 교육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남편과 아내는 배우자와 자녀들을 사랑하고 돌보아야 할 엄숙한 책임을 지니고 있다. ‘자식은 여호와와의 주신 기업’(시편 127:3)이다. 부모는 자녀를 사랑과 의로움으로 양육하고, 그들에게 물질적으로나 영적으로 필요한 사항을 충족시켜 주며, 그들이 서로 사랑하고 봉사하며,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어디서 살든지 법

률을 준수하는 시민이 되도록 가르쳐야 할 거룩한 의무를 지니고 있다. 남편과 아내 곧 어머니와 아버지는 이 의무의 이행에 대해 하나님 앞에 책임을 지게 될 것이다.

“가족은 하나님께서 제정하여 주신 것이다. 남녀간의 결혼은 그의 영원한 계획에서 반드시 필요한 요소이다. 자녀들은 결혼의 테두리 안에서 태어나 결혼 서약을 완전하고 성실하게 지키는 부모에게 양육 받을 권리가 있다. 가족 생활의 행복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에 근거를 둘 때 가장 훌륭하게 성취될 수 있다. 성공적인 결혼과 가족은 신앙, 기도, 회개, 용서, 존경, 사랑, 동정심, 일 그리고 건전한 오락 활동 등의 원리 위에서 이루어지고 유지된다. 하나님의 계획에 의하여 아버지는 자신의 가족을 사랑과 의로움으로 다스려야 하며, 생활에 필요한 것들을 마련하고 가족을 보호할 책임이 있다. 어머니의 주된 책임은 자녀를 양육하는 것이다. 이러한 신성한 책임을 수행할 때 아버지와 어머니는 동등한 동반자로서 서로를 도울 의무가 있다. 장애나 죽음, 그리고 그 밖의 상황에 따라 이러한 원리를 개별적으로 조절할 필요가 있을 수도 있다. 필요한 경우, 친척이 도움을 주어야 한다.”

위와 같은 두 단락의 말씀들은 실제적인 적용에 관한 것들입니다. 우리가 가족의 영적이며 물질적인 필요 사항을 제공하는 것과 관련해서 지금 당장 시작할 수 있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필요 사항이 발생하기 오래 전부터, 아니 지금이라도 우리가 준비할 수 있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 행하였다는 것을 알았을 때, 우리는 마음을 놓을 수 있습니다.

우선, 우리는 실패가 아닌 성공을 위한 계획을 세울 결심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 통계 자료들은 선언문에서 보여 주는 사랑이 많은 신 아버지와 어머니 그리고 사랑 받고, 가르침 받으며, 보살핌을 받아야 할 자녀들로 구성된 전통적인 가족 관계가 이미 멸종되어 버린 공룡처럼 점차 사라져 간다는 그럴싸한 논리로 우리들을 납득시



키려 하고 있습니다. 의로운 사람들도 때때로 자신들의 능력 밖의 상황에 의해 그들의 가족 내에 불행한 문제를 갖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은 자신의 가족의 경험에 비추어 알고 계실 것입니다. 어떠한 상황에 의해 여러분이 강압을 받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 이상적으로 마련해 놓으신 일을 위한 계획을 세우는 데 용기와 신앙이 필요 합니다.

반대로 실패를 위한 계획은 그 안에 실패할 수밖에 없는 중요한 요인들이 있고 이상도 축소시키게 됩니다.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은 두 가지 계명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버지는...[자신의 가족을 위하여] 생활에 필요한 것들을 마련하고"와 "어머니의 주된 책임은 자녀를 양육하는 것이다."라는 두 계명입니다. 이렇게 되는 것이 대단히 어려운 일임을 알고 있기 때문에, 젊은 남성은 자신이 동등한 동반자가 되기 위해 충분히 가정에서 함께할 수 없다면 얼마나 돈을 벌 수 있는지를 기초로 하여 직업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젊은 여성은 자신의 자녀들을 양육하기 위한 주된 책임에 상반되는 직업을 위해 준비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결혼을 하지 않을 수도 있고 아이들을 갖게 되지 않을 경우도 있으며, 또한 자녀들을 혼자 키워야 할 경우도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들은 자신들의 가족을 양육시키는 데 필요한 복음과 세상의 유용한 지식들을 배우는 데 집중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재능과 교육을 바로 그들의 가정에서 가장 잘 활용할 수 있다는 점을 깨닫지도 못하면서 말입니다. 결과적으로 젊은 남성과 여성은 이렇게 계획했기 때문에 그들은 가족에게 최선의 것을 얻는 것이 더 희박해 질지도 모릅니다.

그들 젊은 남성과 여성은 자신들의 미래의 가족의 물질적인 필요 사항에 관하여 걱정하는 데에는 분명 모두가 현명합니다. 평균적인 급여와 비교해 볼 때, 집값은 오른 것 같고, 직업을 유지하는 것은 더욱더 어려워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젊은 남성과 여성이 미래의 가족에게 제공하기 위하여 준비함에 관해 생각할 수 있는 다른 방법들이 있습니다. 수입은 그것의 일부일 뿐입니다. 여러분은 돈의 부족함으로 인하여 곤궁함을 느껴 자신들의 가족 소득을 늘리는 해결 방법을 선택하지만, 곧 소득이 얼마이든지 간에 재정적인 어려움을 다시 발견하게 되는 남편과 아내들을 보신 적이 있습니까? 다음과 같은 오래된 공식이 있습니다. 5달러를 벌어서 6달러를 소비하는 것은 비극이고, 4달러를 벌어서 3달러를 지출한다면 그것은 행복입니다.

젊은 남성이 자신의 가족을 부양하고 일이 끝난 후에, 적당한 시간에 귀가하든지, 젊은 여성이 자녀들을 양육하기 위해 가정에 있든지, 어떻게 돈을 버는가를 배우는 것처럼 어떻게 돈을 쓰는가를 배우는 것도 해결 방법이 됩니다. 브리감 영 대관장은 당시의 사람들에게 그가 했던 것처럼 우리들에게 다음과 같은 방법을 말합니다. "만약 여러분이 부자가 되고 싶으시다면, 여러분이 벌어들이는 것을 저축하십시오. 바보는 돈을 버는 것을 알지만, 현명한 사람은 그 돈을 저축하고 자신의 유익을 위하여 그 돈을 활용합니다. 자 일하러 나가십시오. 그리고 모든 것을 저축하십시오. 그리고 가정에서 여러분의 보닛(햇빛으로부터 얼굴과 목을 보호하는 모자)과 옷을 만드십시오."(브리감 영 설교집, 11:301)

브리감 영 대관장은 오늘날의 세상에서 젊은 부부에게 보닛을 집에서 만들라고 말하는 대신 자동차, 의류, 오락, 주택, 휴가, 그리고 그들이 언젠가는 자신의 자녀들에게 주고자 하는 모든 것들에 관련하여 그들이 정말 필요로 하는 것은 무엇인지 주의 깊게 생



사진 촬영 : 제드 클러크

"부모는 자녀를 사랑과 의로움으로 양육하고, 그들에게 물질적으로나 영적으로 필요한 사항을 충족시켜 주며, 그들이 서로 사랑하고 봉사하며,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도록 가르쳐야 할 거룩한 의무를 지니고 있다."





각해 보도록 제안하고 계시지 모릅니다. 또한 그는 세상에서 필요하다고 말하는 것과 그들의 자녀들이 진정으로 필요로 하는 것 사이의 비용 차이가, 부모가 자녀들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거하시는 집으로 데려가기 위해 자녀들과 함께하는 데 필요한 시간적인 여유를 줄 수 있다고 말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최대한 절약하여 지출하는 습관을 기르고 직업에 대해서도 매우 주의 깊은 계획을 한다 할지라도, 그러한 것이 성공을 충분히 보장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일은 우리가 부양하고 양육하는 책임에 있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했다는 것을 앞으로써 생겨나는 화평의 느낌을 갖게 하기에는 충분한 것입니다.

우리 앞에 놓여 있을 수 있는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성공하기 위하여 계획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있습니다. 자녀들을 가르쳐야 할 우리의 의무에 대해 잘 나와 있는 선언문에는 우리를 위한 높은 표준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이 서로 사랑하고 서로 봉사하며, 계명을 지키고 법률을 준수하는 시민이 되도록 하기 위하여 어떻게 해서든지 가르쳐야 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훌륭한 가족이었지만 이것을 성취하지 못했던 가족에 대해 생각하거나, 조그만 실해도 없이 그것을 성취한 가족은 한 세대나 두 세대에 걸쳐서도 거의 없을 것이라는 것을 생각해 본다면, 우리는 실망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의 선택을 통제할 수 없습니다. 또한 우리는 우리의 아이들이 하늘에 이르도록 강요할 수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할 일은 결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영원히 함께하고자 하는 가족들에게 하늘의 힘을 끌어내리기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할 것임을 결심할 수 있습니다.

우리들을 위한 열쇠는 선언문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가족 생활의 행복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에 근거를 둘 때 가장 훌륭하게 성취될 수 있다."

가족 구성원이 서로 사랑하고 봉사하며,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법률을 준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그들에게 단순히 복음을 가르치는 것만은 아닙니다. 그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서 신앙으로 그것을 행하려고 노력하는 데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그렇게 행할 때, 그들의 성품은 그들이 추구하는 행복을 만들어 내는 방향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물론은 그러한 변화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 있는 복음의 자연스러운 열매라고 다음과 같이 기록했습니다.

"회개의 첫 열매는 침례요, 침례는 계명을 이루는 신앙으로 이루어지나니, 계명을 이름으로 죄 사함을 얻으며,

"죄 사함을 받은 뒤에는 온유하며 마음이 낮아져서 이 온유함과 겸손해진 마음으로 인하여, 성신이 임하시는 것이다. 이 성신이란 보혜사라. 소망과 온전한 사랑으로 가득하게 하시나니, 성신으로 기도할진대 이 온전하신 사랑은 마지막이 되어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과 더불어 거할 때까지 깃들여 있으리라."(모로나이사 8:25~26)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에게 침례를 잘 준비시킨다면, 우리는 우리 자녀들의 삶에 대속의 영향을 가져 오고, 우리의 가정에 하늘의 힘을 가져오게 될 그러한 과정에 우리 자녀들을 준비시키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필요로 하는 변화에 대해 생각해 봅시다. 우리는 부지런히 기도함으로써 마지막까지 견디어 낼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우리를 소망과 온전한 사랑으로 채워 줄 성신을 필요로 합니다. 그런 다음 우리는 가족으로서 하나님 아버지와 영원히 함께 살 수 있습니다. 성신은 어떻게 올 수 있습니까? 물론이 그의 아들 모로나이에게 했던 다음과 같은 간단한 약속에서 우리는 그 해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과 회개, 그런 다음 죄 사함으로 인도하는 권능 있는 자에 의한 침례에 의해서 우리는 성신을 받을 수 있습니다. 침례는 우리 마음을 온유하고 겸손하게 합니다. 그런 다음에야 비로소 소망과 온전한 사랑으로 우리를 채워 주는 성신이 우리의 동반자가 될 것입니다.

이렇게 바라 왔던 사랑과 행복에 관하여, 우리는 다음과 같은 약속의 말씀을 선언문에서 조심스럽게 엿볼 수 있습니다. "가족 생활의 행복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에 근거를 둘 때 가장 훌륭하게 성취될 수 있다." 이 말씀을 읽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모르거나 거부하는 사람들에게 에워싸이게 될 것이라는 것을 알기에 저는 마음이 아픕니다. 그들은 단지 그들의 최선을 다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다음과 같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가족 안에서의 그들의 위치에 대해 알고 계십니다. 영생에 이르기 위하여 요구되어지는 일을 행하고자 할 때, 그러한 모든 일에 대한 방편이 미리 마련되어 있음을 그들은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어떻게 그들에게 그러한 은사를 줄 수 있는지를 이해하지 못할 수 있고, 또한 그 은사를 누구와 나누어야 할지 모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약속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이 일을 배울지니, 곧 의의 일을 행하는 자는 자기 상을 받을 것이요, 이 세상에서는 평화를 얻고 장차 올 세상에서는 영생을 얻느니라.

“나 주가 이를 말하였고 성령이 증거하느니라. 아멘.”(교리와 성약 59:23~24)

그러한 평화는 속죄가 우리의 삶에 영향을 미쳐 왔다는 확신과 그러한 확신으로부터 오는 영생에 관한 소망으로부터 올 것입니다. 선언문은 그것에 담긴 진리에 따르기를 게을리 한 사람들에게, 단지 이 세상에서 평화를 누리지 못하거나 행복을 느끼지 못하는 것보다 훨씬 비참한 결과가 뒤따르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선언문의 마지막 부분에 나오는 예언적인 경고의 말씀과 우리에게 행동에 옮기도록 요구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는 순결에 관한 성약을 어기거나, 배우자나 자녀를 학대하거나, 가족의 책임을 이행하지 않는 사람들은 언젠가 하나님 앞에 책임지게 되리라고 경고한다. 더 나아가서 우리는 가족이 붕괴될 때 개인과 지역 사회와 국가에 고대와 현대의 예언자들이 예언했던 재난이 닥칠 것이라는 사실을 경고한다.

“우리는 온 세상의 책임 있는 시민과 정부 관리들에게 가족을 사회의 기본 단위로서 유지하고 강화하기 위한 방안들을 시행하여 줄 것을 요청한다.”

가족 단위는 사회와 교회의 기초가 될 뿐만 아니라 영생을 향한 우리의 소망의 기초도 됩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속해 있는 교회나 사회에서 확산시킬 수 있는 것을 보다 작은 단위인 가족 내에서 실행해 보기 시작합니다. 그런 다음, 우리는 우리가 성약과 충실함에 의해 영원히 함께 하나가 된 우리 가족 내에서도 실행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가족을 ... 유지하고 강화하기 위한 방안들을 시행”하는 것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저는 우리가 그러한 일을 행하도록 기원합니다. 저는 여러분이 다음과 같이 간구하시길 부탁드립니다. “아버지시여, 제가 어떻게 준비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여러분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것들을 여러분이 얼마나 원하시는지 그분께 말씀드리십시오. 여러분은 특별한 느낌을 받게 될 것이며, 만약 여러분이 그러한 일들을 행하신다면 저는 여러분께 하늘의 힘에 의한 도움을 약속드립니다.

저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가

영으로서 그분과 함께 살았던 것처럼 지금도 살아 계시다는 것을 간증드리며, 우리가 이 다음에 올 세상에서 그분과 함께 살지 못한다면, 우리는 그 어느 곳에서 살든지 외로이 살아가게 될 것이라는 것을 간증드립니다. 저는 예수 그리스도가 구세주이심을 간증드립니다. 우리 모두의 죄를 대신하여 고통당하심으로써, 그분은 여러분과 저에게 변화를 가능하게 하셨습니다. 그러한 변화는 우리에게 영생을 가져다 줄 수 있습니다. 저는 성신이 소망과 온전한 사랑으로 우리를 가득 채워 주심을 간증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께서 신앙으로 여러분이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하신다면, 요셉 스미스에게 회복되고, 지금은 고든 비 힝클리 대판장이 지니신 인봉의 권세가 우리를 가족으로서 묶어 주고, 우리에게 영생을 가져다 준다는 것을 간증드립니다. □

“가족 생활의 행복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에 근거를 둔 가장 훌륭하게 성취될 수 있다.”



가 족

세상에 전하는 선언문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 대관장단
및 십이사도 평의회

우 리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의 대관장단과 십이사도 평의회는 남녀간의 결혼은 하나님이 제정하여 주신 것이며 가족은 창조주께서 그의 자녀들의 영원한 운명을 위하여 마련하신 계획의 중심이라는 것을 엄숙하게 선언한다.

모든 인간, 즉 남자와 여자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다. 사람은 모두 하늘 부모의 사랑하는 영의 아들과 딸이며, 따라서 각각 신성한 품성과 운명을 지니고 있다. 남녀의 성별은 각 개인의 전세와 현세와 영원에 걸친 개인의 신분과 목적을 결정하는 본질적인 특성이다.

전세에서 영의 아들과 딸들은 하나님을 그들의 영원하신 아버지로 알고 경배하였으며, 그의 계획을 받아들였다. 그 계획에 의하여 그의 자녀들은 육신을 얻고 지상 생활의 경험을 통하여 완전을 향해 발전하여 궁극적으로 영생의 상속자로서 자신의 신성한 운명을 실현할 수 있게 되었다. 하나님의 행복의 계획은 가족 관계를 무덤 너머까지 계속되게 한다. 거룩한 성전에서 행해지는 신성한 의식과 성약은 개인을 하나님의 면전에서 돌아갈 수 있게 하며 가족을 영원히 하나로 결속시켜 준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이브에게 주셨던 최초의 계명은 그들이 남편과 아내로서 부모가 될 수 있는 잠재력에 관한 것이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자녀들에게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고 명하신 계명이 여전히 유효함을 선언한다. 더 나아가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출산의 신성한 능력은 남편과 아내로서 합법적으로 결혼한 남자와 여자 사이에서만 사용되어야 한다고 명하셨음을 선언한다.

우리는 생명을 창조하는 방법을 하나님께서 정하여 주셨음을 선언한다. 우리는 생명이 존엄한 것이며,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에서 생명이 참으로 중요하다는 것을 분명히 밝힌다.

남편과 아내는 배우자와 자녀들을 사랑하고 돌보아야 할 엄숙한 책임을 지니고 있다. '자식은 여호와와 주신 기업' (시편 127:3)이다. 부모는 자녀를 사랑과 의로움으로 양육하고, 그들에게 물질적으로나 영적으로 필요한 사항을 충족시켜 주

며, 그들이 서로 사랑하고 봉사하며,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어디서 살든지 법률을 준수하는 시민이 되도록 가르쳐야 할 거룩한 의무를 지니고 있다. 남편과 아내, 곧 어머니와 아버지는 이 의무의 이행에 대해 하나님 앞에 책임을 지게 될 것이다.

가족은 하나님께서 제정하여 주신 것이다. 남녀간의 결혼은 그의 영원한 계획에서 반드시 필요한 요소이다. 자녀들은 결혼의 테두리 안에서 태어나 결혼 서약을 완전하고 성실하게 지키는 부모에게 양육 받을 권리가 있다. 가족 생활의 행복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에 근거를 둘 때 가장 훌륭하게 성취될 수 있다. 성공적인 결혼과 가족은 신앙, 기도, 회개, 용서, 존경, 사랑, 동정심, 일 그리고 건전한 오락 활동 등의 원리 위에서 이루어지고 유지된다. 하나님의 계획에 의하여 아버지는 자신의 가족을 사랑과 의로움으로 다스려야 하며, 생활에 필요한 것들을 마련하고 가족을 보호할 책임이 있다. 어머니의 주된 책임은 자녀를 양육하는 것이다. 이러한 신성한 책임을 수행할 때 아버지와 어머니는 동등한 동반자로서 서로를 도울 의무가 있다. 장애나 죽음이나 기타 다른 상황에 따라 이러한 원리를 개별적으로 조절할 필요가 있을 수도 있다. 필요한 경우, 친척이 도움을 주어야 한다.

우리는 순결에 관한 성약을 어기거나, 배우자나 자녀를 학대하거나, 가족의 책임을 이행하지 않는 사람들은 언젠가 하나님 앞에 책임지게 되리라는 것을 경고한다. 더 나아가서 우리는 가족이 붕괴될 때 개인과 지역 사회와 국가에 고대와 현대의 예언자들이 예언했던 재난이 닥칠 것이라는 사실을 경고한다.

우리는 온 세상의 책임 있는 시민과 정부 관리들에게 가족을 사회의 기본 단위로써 유지하고 강화하기 위한 방안들을 시행하여 줄 것을 요청한다. □

본 선언문은 1995년 9월 23일 유타 주 솔트레이크시티에서 열린 상호부조회 대회에서 고든 비 힝클리 대관장이 말씀의 일부로 낭독한 것이다.

해의 왕국의 결혼

브리감 영 대판장은 이렇게 가르쳤다. “해의 왕국의 결혼은 “... 예지를 지닌 인간이 영광과 불사 불멸과 영생의 관을 쓰게 되도록 기초를 놓습니다. 사실상 그것은 구원의 거룩한 복음을 처음부터 끝까지 이어 주는 끈입니다.”(교회 대판장들의 가르침: 브리감 영, 163쪽) 새롭고 영원한 결혼 성약을 맺고 지킴으로써 우리는 해의 왕국에서 최고 영광의 단계를 성취할 수 있도록 준비되기 때문입니다.(교리와 성약 131:1-3)

영원한 결혼에 합당한 생활을 할

해의 왕국의 결혼은 성전 결혼에서부터 비롯된다. 불행하게도 성전 결혼을 희망한다고 모든 사람이 즉시 그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고든 비 힝클리 대판장은 이러한 말씀으로 우리들을 일깨워 주셨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과 거룩하신 구세주의 계획하에서 합당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영원히 반지 못하게 될 축복은 없다고 확신합니다.”(하나님의 딸, 성도의 빛, 1992년 1월호, 117쪽)

주님께서는 우리의 합당함과 우리 마음속의 소망을 아시며 우리의 충실함을 보시고 우리에게 축복을 주신다.

한편, 성전에서 결혼하는 기회를 맞게 된 사람들은 그들에게 약속된 특권들을 누릴 수 있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전 성약을 지켜야 합니다. 십이사도 평의회 의 브루스 알 맥콩기 장로는 이렇게 가르쳤다. “해의 왕국, 혹은 영원한 결혼은 승영으로 가는 입문입니다. 영생을 얻고자 한다면 남녀 모두는 반드시 이 결혼 반차에 들어가

야 하고 그에 따른 모든 성약과 의무를 지켜야 합니다.”(신약전서 교리 주해서, 3권 1:547)

영원한 성약이 주는 현세의 축복

성전 결혼이 영원의 약속들과 결부되어 있지만, 남편과 아내들이 해의 왕국의 결혼에 따른 축복을 받기 위해 영원토록 기다려야 할 필요는 없다. 성전에서 결혼을 하거나 그를 위해 준비하는 과정에서 많은 현세의 축복들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홍콩의 리형칭 형제는 약 8년 전에 산업 재해로 한쪽 팔을 잃었다. 그 결과로 그는 직장을 잃고 병들어 실의에 빠지게 되었다. 그러나 오늘날 그의 아내인 콤빈콤포넬과 자녀들과 함께 성전에서 인봉 받을 것을 계획하는 가운데 신앙이 그의 마음을 채워 주고 있다.

그는 이렇게 말한다. “우리가 교회에 들어오기 전에, 저는 주로 돈 버는 일에만 관심을 두었습니다. 이제 우선 순위가 달라졌어요. ... 우리가 함께 있으며 영원히 함께 할 수 있다는 사실에 무척 감사를 드립니다. ... 성전이 있다는 사실 때문에 저는 선택해야 하며, 몸과 마음가짐을 바로해야 하며, 합당해야 한다는 것을 되새기게 됩니다.”(켈린 릭스 아담스로부터 인용, '홍콩에서의 꿈이 실현되다', 성도의 빛, 1997년 3월호 38쪽)

물론 남편과 아내가 서로에 대한 헌신을 굳건히 마음에 새기는 성전 결혼을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튼튼한 결혼 생활을 할 수 있다. 그러나 성전 결혼은 일반 결혼과는 달리 영원한 관점과 하나

님의 거룩한 도움을 보다 광범위하게 받을 수 있게 해준다. 칠십인 정원회의 브루스 시하펜 장로는 성전 결혼을 성약 결혼이라 부르며, 이같은 모습을 보여 주었다. “성약 결혼을 한 사람에게에는 문제가 생겨도 남편과 아내가 함께 극복해 나갑니다. 이들은 서로와 또 사람들과 하나님 앞에 맺은 성약에 굳게 매여, 서로 주면서 성장하려고 결혼합니다.”(“성약 결혼”, 성도의 빛, 1997년 1월호, 26쪽)

• 우리가 해의 왕국의 최고 영광에 합당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가?

• 성약의 결혼이 지금 이 세상의 우리들을 어떻게 지켜 주는가? □





“도적질하지 말찌니라”

리처드 디 드레이퍼



여덟 번째 계명은 모든 형태의 도적질을 금하고 있다. 주님의 계명은 우리에게 계명의 긍정적인 면, 다른 사람의 권리와 소유물과 필요 사항을 존중하라고 가르치고 있다.



나의 동료 교수는 자기 차의 유리창이 깨진 것을 보고는 가슴이 철렁했다. 단순히 유리창을 갈아야 한다는 생각 때문이 아니라, 여러 해 동안 애써 해 온 일이 사라져 버린 것은 아닌가 하는 데서 오는 두려움 때문이었다. 그 두려움은 즉시 사실로 확인되었다. 누군가 서류 가방을 훔쳐 간 것이었다.

대도시에서 강의하기로 약속한 시간에 예상보다 늦게 도착한 그는 강의실에서 좀 떨어진 이면 도로에 차를 주차시켜야 했다. 무거운 서류 가방을 들고 다니지 않으려고 강의 노트만 빼낸 다음 낡은 가방은 좌석에 놓고 떠났다. 가방이라야 다 낡은 데다 그 안에 든 것도 돈이 될 만한 것이 없었기 때문에, 그는 별일 없겠지 하고 생각했었던 것이었으나, 정반대의 결과가 나타나고 말았다.

그것을 잃고 나서 실망하고 슬퍼하는 그의 모습을 보고 나는

하나님께서 자녀들에게 개인적으로 수고한 데 따르는 대가를 누릴 수 있는 자유를 허락해 주셨다. 아담은 다른 사람의 땀에 의해서가 아니라, “[자신의] 이마에 땀을 흘려 음식을 먹기 시작하였고 그 아내 이브도 그와 함께 일”(모세서 5:1)을 했다.

마음이 아팠다. 오래된 서류 가방 속에는 수백 킬로미터의 여행의 결과와 수천 달러의 장학금을 받아 한 일과 여러 달 동안 심혈을 기울여 조사하고, 분석하고, 연구하고, 상고하고, 기술한 논문이 들어 있었다. 가방 속에 든 책 크기의 서류는 다른 사람들에게는 돈이 될 만한 가치가 없는 것이었다. 그러나 도둑이 욕을 하고 던져 버렸을 그것이 어떤 사람에게는 전 인생을 건 아주 귀중한 것이었다.

그렇기에 도둑질은 흔히 실제적인 자산 가치보다 더 많은 것을 도둑을 맞게 하는 것이다. 어떤 사람이 여덟 번째 계명을 어길 때, 그 피해자는 자신의 평안만이 아니라 생의 일부를 나타내는 소유물도 잃는 것이 된다.

여덟 번째 계명의 의미

이 계명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히브리어인 로 테그나브(*lo tegnav*), 즉 “훔치지 말라”라는 표현에서 볼 수 있듯이 직접적이고 강력한 것이다. 테그나브는 “도적질하다” 또는 “훔치다”는 의미의 가나브(*ganav*)라는 어원에서 파생된 것이다. 이 말은 함축적인 의미에서 볼 때 기만, 남의 눈을 피함을 암시한다. 그리스어판 구약전서는 히브리어, 가나브를 그리스어 클렙토(*klepto*)로 번역했다. 히브리어의 가나브와 마찬가지로 클렙토는 정당하게 다른 사람에게 속한 것을 비밀스럽고 교묘하게 자기 것으로 취한다는 개념을 갖고 있다. 횡령과 오용은 이러한 도적질의 형태의 좋은 예가 된다. 기만과 속임수와 같은 용어는 도적질의 방

법론이 된다.

그렇다면 강제로 물건을 취하는 것은 어떠한가? 히브리어의 가나브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것으로 강탈한다는 뜻의 가잘(*gazal*)이라는 말이 있다. 이 낱말은 대결, 폭력 또는 상해 협박의 뜻을 강하게 내포하고 있다. 하나님께서는 “너는 네 이웃을 압제하지 말며 억탈하지 말며...”(레위기 19:13)라고 명하셨다. 이와 같이 주님에게 있어서 도적질에는 강탈, 부정 취득 행위, 약탈, 기타 부당하게 장악하는 것들이 포함되는 것이다.

성경은 도적질은 살인, 간음 및 거짓 맹세를 포함한 일련의 죄악에 포함된다고 강조한다. 이러한 모든 것은 직접 연관되어 있으며, 도적질은 공통적으로 연결되어 있다. 살인은 부당하게 생명을 빼앗는 것이고, 간음은 순결을 빼앗는 것과 관련이 있으며, 거짓 맹세는 보통 명성이나 재산이나 재물을 빼앗는 것을 포함한다.

“도적질하지 말찌니라”(출애굽기 29:15)라는 문장에는 어떤 대상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 금지 사항이 광범위하고 무조건적이다. 어떤 것도 훔쳐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노예 제도가 널리 시행되어 있던 시대에는 주님은 소유물만이 아니라 부당하게 잡힌 사람들도 보호할 율법을 계획하셨다.(출애굽기 21:16 참조) (데일 패트릭, *구약의 율법*, 1985년, 55-56쪽)

계명은 사람이 태만으로 인해 다른 사람의 것을 훔치는 결과가 초래되게 해서도 안 된다는 뜻까지 내포하고 있다. 사실상 성경은 태만이 중범의 죄악이라고 가르치고 있다.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는 낮은 사람에게도 좋은 이웃이 되어야 하며(신명기 22:1~4 참조), 어려움에 처한 사람도 도와야 한다.(잠언 24:10~12 참조) 위 잠언의 세 절을 연구한 어느 학자는 이런 말을 했다. “열익한 조진(10절)과 희망이 없는 과업(11절)과 어느 정도의 무지(12절) 등을 핑계로 변명하는 자는 참된 목자가 아니요, 고용인에 불과하다. 사랑이란 쉽게 식힐 수 있는 것이 아니며, 사랑의 하나님 또한 쉽게 물리칠 수 없다.”[데렉 키드너, *루사스 존 러쉬두니에서, 성경 율법의 원리*(1973년), 465쪽 참조] 태만의 죄악성에 대해 말씀하는 자리에서, 당시 십이사도 정원회의 일원이었던 스펜서 더블류 김볼 장로는 이렇게 말씀했다. “도둑질을 하지 말아야 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재산을 보호해야 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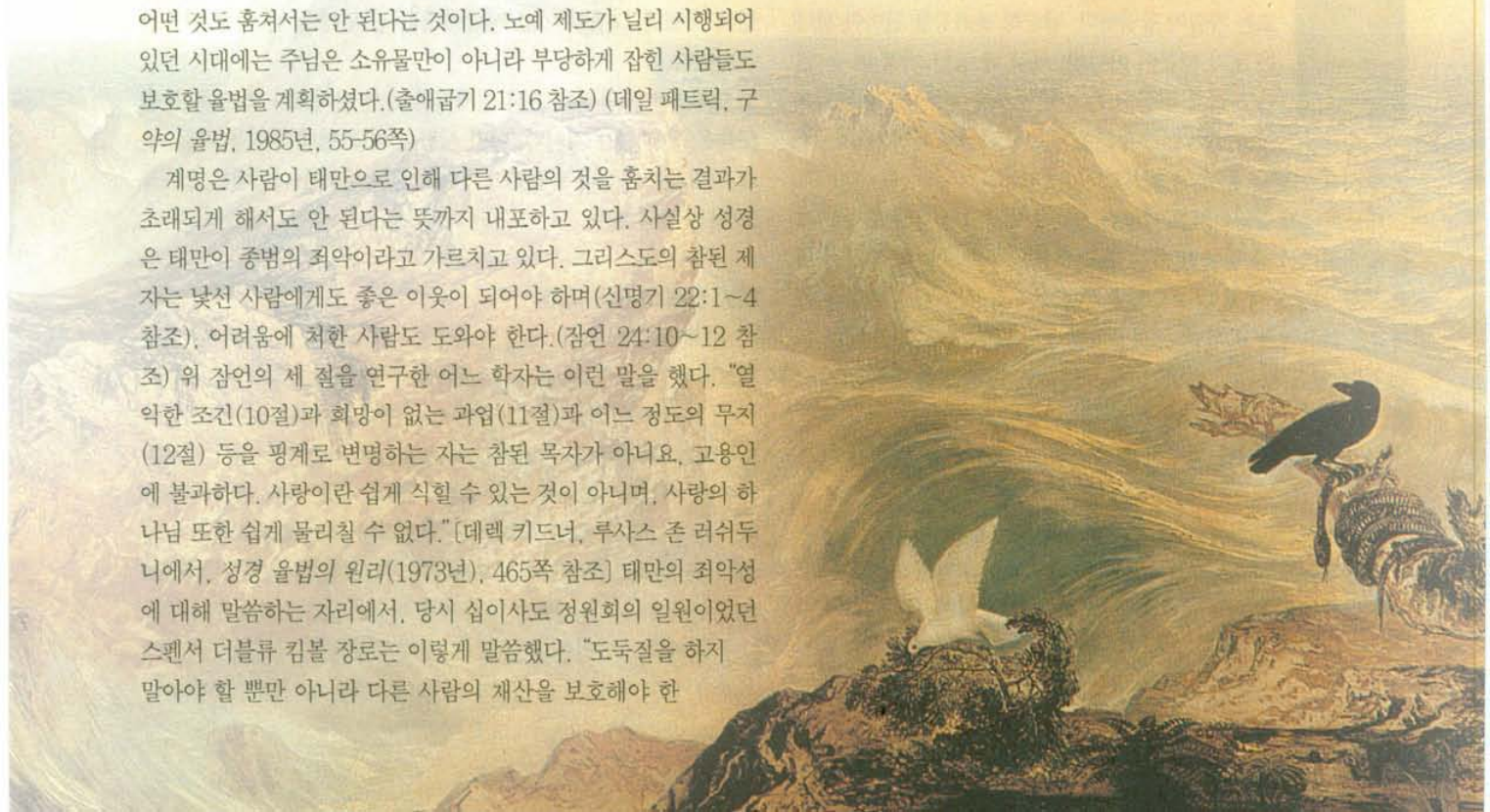
다.”(용서가 낳는 기적, 96쪽)

세 가지 중요한 원리

여덟 번째 계명을 면밀히 살펴보면, 도적질이 왜 최악이며 범법 행위인지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세 가지 원리를 제시하고 있다.

첫째, 이 계명은 재산에 대한 개인의 소유권을 확실히 인정함으로써 생활에서 필요한 책임을 보호하고 있다. 예즈라 테프트 벤슨 대판장은 이렇게 가르쳤다. “인간이 합법적인 지위나 소유물에서 그의 권리를 보호 받지 못하고 그 손실분이나 파괴된 것에 대하여 법적으로 보상 받지 못한다면, 자유는 가능하지 않게 됩니다. 이 권리

노아의 시대에 살인과 도적질로 이익을 얻으려 한 암흑의 일꾼들이 폭력으로 지상을 가득 채웠다. 그 결과, 주님께서 홍수를 보내시어 악인들을 멸하셨다.





를 빼앗아 버리면 인간은 노예의 신분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전 미국 대법원 판사인 조지 서더랜드는 그것을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간에게) 자유를 주되, 그에게서 자유의 결실이요 상징인 소유물을 빼앗는다면 그는 여전히 노예로 남게 됩니다.' ([에즈라 테프트 벤슨의 가르침(1988년), 608쪽])

하나님께서서는 아담을 통해서 인간에게 지상을 다스리게 하심으로써 그분의 자녀들에게 지배권을 부여하셨다. 그렇게 하심으로써, 하나님께서는 자녀들에게 개인적으로 수고한 데 따르는 대가를 누릴 수 있는 자유를 허락해 주셨다. 아담은 다른 사람의 땀에 의해서가 아니라, "(자신의) 이마에 땀을 흘려 음식을 먹기 시작하였고 그 아내 이브도 그와 함께 일" (모세서 5:1)을 했다.

둘째, 여덟 번째 계명은 하나님께서 재산을 개인적으로 소유하는 권리의 근원이 되심을 우리에게 보여 주고 있다.

모든 계명은 주님에게서 나오는 것이다. 주재하시는 주님이시며, 하늘과 지상의 창조주이신 주께서 그분의 왕국을 다스리는 율법을 정하신다. (교리와 성약 88:34~42 참조) 지구는 주님께 속한 것이며, 인간이 그것을 나누어 갖도록 정해 놓으셨다. 그러나 모든 인간은 기록하신 율법에 따라 그와 같이 해야 한다.

셋째, 흠치는 행위를 하는 사람은 누구라도 하나님을 거스르는 것이다. 모든 기록한 율법은 주님에게서 나오는 것이므로 그 율법을 조금이라도 거스르는 것은 주님을 거스르는 것이다. 그러므로 주님의 계명을 토대로 한 지상의 율법, 즉 개인, 가족, 재산, 자본, 노동, 국가, 또는 교회에 대한 율법을 범하는 것은 아버지를 거스르는 행위인 것이다. 다윗 왕은 이 사실을 깨닫고 다른 사람의 아내를 취하고 난 뒤에 그를 살해한 것과 관련하여,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시편 51:4) 라고 외쳤다. (성경 율법의 원리, 10~13쪽 참조)

도적질은 궁핍하고 가진 것이 없어 하게 된 것이라도 하나님 아버지를 거스르는 죄악이 된다. 그 행위는 패역한 것이다. (잠언 30:9 참조) 반대로 힘든 상황에서도 도적질하지 않는 정직한 사람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보여 주는 사람이다. 그는 주님과 맺은 성약의 관계를 의식하고 그것을 받들고자 한다.

어느 학생이 정직에 관한 이러한 면을 효과적으로 보여 주는 이야기를 내게 한 적이 있다.

부친은 그의 성장기에 사업에 실패하고 말았

다. 그의 부친은 열심히 일하여 새로운 사업을 일구어 장래가 약속되었으나, 처음에는 가족에게 빠듯한 수입만이 돌아올 뿐이었다. 학생의 어머니도 일자리를 찾아 나섰다. 그것은 가족, 특히 아버지로서는 속이 상하는 일이었으나, 아버지는 얼마 지나지 않아 끝날 것이라고 약속했다. 1년도 안 되어 사업이 나아져서 어머니는 직장을 그만둘 수 있게 되었다. 얼마 후에 가족은 상당히 편안한 형편이 되었다.

경영학을 전공한 그 학생이 아버지를 위해 일을 하기 시작했을 때, 그는 부모님이 사업에 실패했을 당시, 파산법에 의해 부채가 다 탕감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당시 빚진 것을 모두 갚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의 부친은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면서 바로 채권자들에게 다 갚아 가기 시작했던 것이다. 그런 이유 때문에 그의 어머니도 일을 하러 다녔던 것이다. 그 젊은 친구가 합법적으로 취소된 빚을 왜 갚아 나갔느냐고 묻자, 그의 부친은 비록 많은 정직한 사람들이 합법적으로 탕감 받은 빚을 갚지 않아도 되는 것은 알고 있으나, 자신의 상황은 장기간에 걸치기는 해도 빚을 갚을 수 있었던 것으로 생각했다고 설명했다. 빚을 갚지 않은 것에 대한 염려로 그와 그의 아내는 주님과 개인적으로 맺은 성약을 다시 한 번 생각해보고, 그들이 주님과 맺은 성약에 대해서 다시 살펴보게 하였다. 그들은 빚을 지고 있으면서 그것을 갚기 위해서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는 것은 도적질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생각했다. 그의 아버지와 어머니는 빚을 함께 갚아 나갔으며, 그래서 그 부부와 가족은 축복을 받을 수 있었다.

도적질과 비밀 결사

도적질은 하나님의 지시하에, 즉 하나님 아버지의 명하심에 따라, 땅을 정복하고 모든 동물의 왕국을 다스리라는 하늘의 큰 율법을 범하는 것이다. 역사가 시작된 때로부터 반항적인 인간들은 자신의 규칙에 따라 지배권을 행사하고자 했다. 한 마디로 말해서, 도적질을 하고자 했던 것이다. 그들은 그들의 창조주요 입법

자이신 주님의 제지하시는 손길을 외면하고, 마음내키는 대로 이 지상과 백성들을 통치하기를 바랐다. 동물의 왕국, 즉 인간에게서 도적질하고, 탈취하고, 약탈하기를 바랐던 것이다. 가인이 “...이 큰 비밀의 주인이니... 내가 살인하여 이득을 보리라...”(모세서 5:31)라고 말한 것에서 살인이 어떤 것인지를 유추해 볼 수 있다.

비밀 결사와 암흑의 일꾼들은 노아의 시대에 거의 성공을 거두었다. 그 결과 세상은 “폭력이 가득”(모세서 8:28) 찼다. “하나님이 보신 즉 ...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파괴”(창세기 6:12)하였기 때문에 땅도 부패하였다. 그 결과 주님은 홍수를 보내시어 사악한 자를 “지면에서 쓸어”(창세기 7:4; 모세서 8:30 참조) 내셨다.

홍수 이후 부패의 과정이 다시 시작되기까지는 시간이 그다지 많이 걸리지 않았다. 사탄의 속삭임으로 인간은 하나님의 영역에 속한 것을 도적질하는 데 도움이 될 제도를 고안해 냈다. 악마의 능력으로 “... 권세를 탐하는 자를 도와 살인하고 약탈하며...”(이더서 8:16) 악한 지도자들은 백성들에게 악한 맹세를 시켜 사악한 행동을 함께하게 했다. 이러한 비밀은 한 세대에서 다음 세대로 전달되었다. 물론경의 개다이엔톤이 그 과정의 정점을 이루고 있다. 그는 “... 말 수단이 능란하고 살인과 강도질을 남모르게 교묘히 해내는...”(힐라맨서 2:4) 자였다. 그 제도가 점차 니파인들 사이에 주도적인 세력이 되었으며, 그 나라의 쇠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힐라맨서 2:13 참조)

말일의 세상도 같은 문제로 고통받고 있으며 앞으로도 그러할 것이다. 말일의 아이러니와 비극의 하나는 백성들이 자기 모순의 파멸로 나갈 것이나, 그들은 “그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적질을 회개치 아니”(요한계시록 9:21)하리라는 것이다.

주님은 역사를 통해서 인류에게 지구상의 풍부한 자원을 유익하게 사용할 것을 가르치고자 하셨다. 예를 들어, 주님은 모세를 불러 이스라엘 자녀들 가운데에서 의로운 사회의 율법을 정하라고 하셨다. 주님은 그분이 정하신 것이 모든 사람의 완전한 발전을 위한 것이 되게 하셨으며, 이 제도는 노동의 대가인 물질을 모든 사람들을 위해 확보해 두는 것을 포함하고 있다. 그러나 너무나 흔히 보

게 되는 것은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재물을 소유하거나 마음대로 하고자 하는 욕구를 이겨내지 못한다는 것이다. 예를 들면, 예언자 아모스가 말한 대로 “... 저희가 은을 받고 의인을 팔며 신 한 켤레를 받고 궁핍한 자를 팔며 가난한 자의 머리에 있는 티끌을 탐”(아모스 2:6~7)낸다는 것이다. 모든 것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헌물을 바치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서, 말라기는 이렇게 말씀했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겠느냐...”(말라기 3:8)

슬프게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는 다른 사람들과 가진 것을 나누기를 거절할 뿐만 아니라 어떠한 수단을 써서라도 남의 것을 빼앗고자 하는 너무나 탐욕스런 사람들을 흔히 볼 수 있다.

우리가 현명하다면, 우리는 아버지께서 의도하신 대로 사람들을 사랑하고 물질을 사용하게 될 것이다. 우리가 물질을 사랑하고 사람들을 사용할 때는 도덕 불감증이 일어나게 된다. 사탄이 가인에게 가르친 무서운 생각은 어떻게 하면 인간의 생명을 재물로 바꿀 수 있는가, 즉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자녀를 노예보다 못하게 만들 수 있는가 하는 것이었다.

구세주의 더 높은 율법

구세주께서는 지상에 오셨을 때 왕국의 보다 높은 율법을 다시 제정하셨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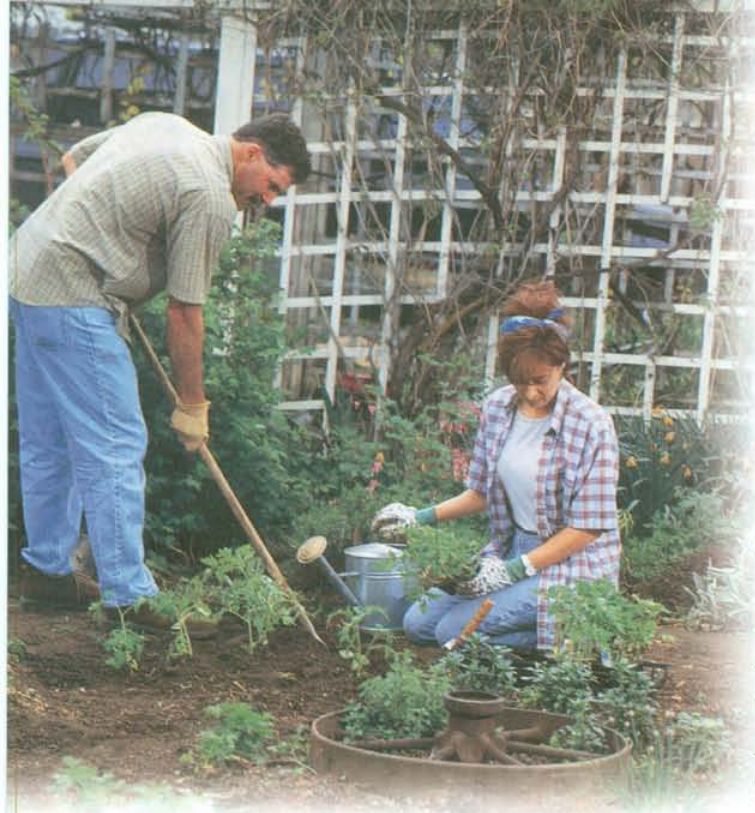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마태복음 22:37~40)

신약전서는 회개하는 그리스도의 제자들에게 이 사랑의 율법에 따라 새로운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권한다.(로마서 6:4; 히브리서 10:19~24 참조) 이 율법은 다른 사람에 대한 우리의 의무와 그들과 주님 섬기는 우리 능력에 대한 전반적인 생각에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바울은 “도적질하는 사람은 다시 도적질하지 말고 돌이켜 빈궁한 자에게 구제할 것이 있기 위하여 제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진정한 대가

몇 년 전 어느 봄날 아침, 나는 아내와 함께 우리 마당의 햇빛이 잘 드는 곳에 작은 벚나무 한 그루를 심었다. 우리는 후에 풍성한 수확을 거둘 거라고 기대했다. 다음날 아침 아내가 잠시 밖에 나갔다가 몹시 놀란 표정으로 돌아왔다. “누가 우리 나무를 가져 갔어요!” 정말 그랬다. 도둑이 그것을 파내 빈 구멍만 남아 있는 것이었다.

우리는 돈으로 따지면 많이 잃은 것이 아니었지만, 그 장소를 준비하고 나무를 사고 그것을 심는 데 든 모든 시간을 잃어버린 것이다. 그래도 우리는 많은 손해를 본 사람과 비교해 보면 별 것 아니라는 생각으로 위안을 삼았다. 그 나무를 가져 간 사람은 거기에 지불된 영적인 대가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생각해 보았을까 하는 의문이 들었다.

끝으로 어떤 도적도 도적질로 살아갈 수는 없을 것이다. 도적질을 하면 영혼을 잃을 위험에 처하게 된다.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였으며, 그렇게 하는 중에 다른 누구에게보다도 결국은 그 자신에게 손해를 입히는 것이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그분의 아들을 통해 우리에게 이렇게 명하셨다.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마태복음 5:48) 그리스어로 “온전하심”으로 번역된 말은 흠없다 또는 완전하다는 의미이다. 그것은 흠 없는 정직을 의미한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완전하시다. 온전히 흠이 없으시다. 우리는 그분의 자녀로서 주님과 같이 되는 잠재 능력을 지니고 있다. 그러나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지, 우리 안에서 하나님과 같은 본질을 형성하지 않는 것은 우리 자신과 우리의 참된 자아,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영원한 관계를 파괴시킨다. 하나님 아버지의 계명을 의도적으로 범하는 것과 같은 도적질은 우리를 흠 없고 “온전”하게 나아가는 것을 가로막는다.

도둑들은 거룩한 잠재 능력을 무시해 버릴 뿐만 아니라 순종하는 사람들이 받게 될 축복과 더불어 물질적인 이득도 빼앗아 간다. 그들이 회개하지 않는다면, 그들은 영생을 스스로 도적질당하는 것이 된다. □

역사를 통해서 주님은 인류에게 지구상의 풍부한 자원을 유익하게 사용할 것을 가르치고자 하셨다. 이것은 노동의 대가인 물질을 모든 사람들을 위해 확보해 두는 것을 포함하고 있다.



일을 하라”(에베소서 4:28)고 촉구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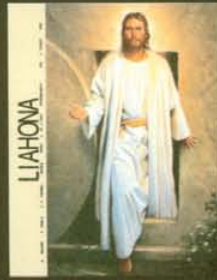
더 나아가 우리는 과거의 죄를 버리고 구세주의 모범을 따르기를 소망할 때, 우리가 하는 매일의 일에서 가장 높은 도덕적 표준을 인식하게 된다. 스펜서 더블류 킴볼 대관장은 이렇게 지적했다. “정직은 가르칠 수는 있지만 법으로 만들 수는 없습니다. 부정 부패가 발생할 때, 많은 사람들이 법이 있어야 한다고 말하고, 우리도 강제적이지는 않더라도 법률이 많이 있다고 대답하지만, 그러나 더 깊게 대담하자면 선행이나 명예나 정직과 같은 것은 법으로 제정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한 가치를 인식해야 합니다.”(스펜서 더블류 킴볼의 가르침, 에드워드 엘 킴볼 편저, (1982년) 193쪽) 사람들이 그러한 가치를 실행할 때, 영의 권세와 사랑의 힘은 법이 할 수 없는 것을 할 수 있으며 도적질하려는 탐욕과 탐심을 극복하게 된다.



불가리아어판
(리아호나)



중국어판 (성도의 성)



체코어판 (리아호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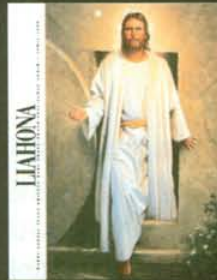
덴마크어판 (별)



네덜란드어판 (별)



영어판 (리아호나)



인도네시아어판
(리아호나)



이탈리아어판 (별)



일본어판 (성도의 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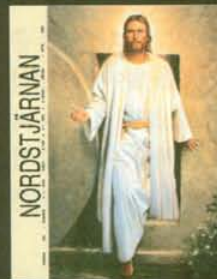
키리바시어판
(리아호나)



한국어판 (성도의 빛)



노르웨이어판
(노르웨이를 비추는 빛)



스웨덴어판 (복극성)



*타갈로그어판
(리아호나)



타이어판 (리아호나)



통가어판 (햇불)



*우크라이나어판
(리아호나)



*베트남어판 (리아호나)

교회의 국제판 잡지에 관한 소개 전세계인을 위한 잡지

마빈 케이 가드너 관리 편집인

"비록 우리는 매우 불확실한 세계에 살고 있지만, 교회의 미래가 밝다고 봅니다. 우리의 가치관을 지킨다면, 우리의 유산을 계속 해서 발전시켜 나아간다면, 주님께 순종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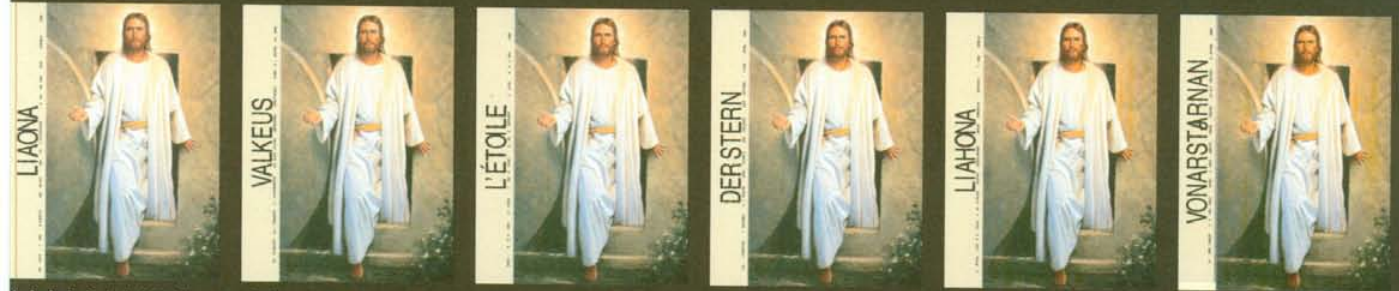
는 생활을 한다면, 단지 복음의 가르침대로만 살아간다면, 우리는 장엄하고 놀라운 방법으로 축복 받게 될 것입니다.

"교회 회원인 우리에게 우리의 가치



헝클리 대판장 사진 촬영: 크레이그 다이몬드

관을 지킨다면 주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아 가도록 도움을 주는 훌륭한 자원이 있습니다. 교회에서 발행하는 잡지는 이러한 자원 가운데 하나입니다. 교회 잡지를 펼치



*피지어판 (리아호나) 핀란드어판 (빛) 프랑스어판 (별) 독일어판 (별) 헝가리어판 (리아호나) 아이슬란드어판 (희망의 별)



*폴란드어판 (리아호나) 포르투갈어판 (리아호나) *루마니아어판 (리아호나) 러시아어판 (리아호나) 사모아어판 (리아호나) 스페인어판 (리아호나)



체부아노어판 (리아호나)

국제판 잡지는 현재 31개 언어로 잡지가 간행되고 있습니다. 최신판은 필리핀 언어 중의 하나인 체부아노어판(왼쪽)으로 이번 달부터 시작됩니다. *표를 한 것은 1998년에 간행되기 시작한 잡지입니다.

면, 그 곳에서 정규적으로 우리 자신과 가족을 이끌어 주고 영성을 고취시키는 살아 있는 예언자와 사도들의 말씀을 찾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전세계의 모든 회원들에게 교회 잡지를 구독 신청하고 읽을 것을 촉구합니다. 우리는 신권 지도자들이 모든 가정에서 이러한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일 것을 권고합니다." (내판장단 - 고든 비헝클리, 토마스 에스 몬슨, 제임스 이 파우스트, 1998년 4월 1일)

세계적인 잡지

솔트레이크시티에 있는 교회 본부 편집

사무실로 국제 잡지의 발행과 관련된 문의가 자주 옵니다. 이러한 문의에 대한 답변과 추가 사항을 안내해 드립니다.

■ 국제판 잡지가 얼마나 많은 언어로 간행되고 있습니까?

현재 31개 언어로 잡지가 간행되고 있습니다. 장차 더욱 많은 언어로 간행할 계획입니다.

■ 모든 잡지의 내용은 동일합니까?

지역 소식란을 제외한 모든 페이지가 동일한 기사와 삽화, 그림, 사진을 게재하고 있습니다. 지역 소식란 대부분은 지역의 사정에 맞게 구성되며 독자가 사는 지역에서 일어나는 행사나 교회 회원에 대한 이야기가

실립니다.

■ 이들 잡지는 같은 잡지 이름을 사용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지만 내용은 동일합니다. 18개어판에서 나침반 또는 방향구라는 뜻을 가진 물문경상의 용어인 리아호나라는 이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른 10개어판은 별, 빛, 햇불 같은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외 나머지 것들은 성도의 "목소리" 또는 "길" 또는 "벧"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국제판 잡지는 이 모든 것을 통칭해서 일컫는 것입니다.

■ 국제판 잡지는 단순히 엔사인의 번역본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국제판 잡지가 엔사인이나 뉴 이라, 프렌드지(영어로 출판되는 교회 잡지) 등에 게재된 모든 기사를 싣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 잡지들에서 발췌하여 싣고 있는 기사도 있고, 같은 달에 출간되는 기사도 있습니다. 또 다른 기사들은 국제판 잡지에 먼저 게재되었다가 나중에 다른 잡지에 게재되는 것도 있습니다.

그 외의 몇 가지 사실

최초의 말일성도 잡지로는 교회가 조직되고 2년 후인 1832년에 미주리 주 인디펜던스에서 출간된 *더 이브닝 앤드 더 모닝 스타(The Evening and the Morning Star)*가 있습니다.

영어가 아닌 다른 언어로 출판된 첫 번째 말일성도 잡지로는 1846년에 출간된 웨일즈어판이 있습니다.

그 외의 다른 말일성도 잡지로는 1850년에 나온 핀란드어판과 1851년에 나온 덴마크어판, 프랑스어판, 독일어판 등이 있으며, 세월이 흐르면서 더 많은 외국어판이 출간되기 시작했습니다. 1967년에 영어가 아닌 언어로 나오던 모든 말일성도 잡지가 여러 언어 편집 부서를 둔 하나의 출판부로 통합되었습니다.

교회에서는 1977년에 영어 국제판 잡지의 간행을 시작했습니다. 영어판 리아호나는 미국, 캐나다, 영국, 오스트레일리아, 뉴질랜드 등을 제외한 지역에서 영어를 주로 사용하는 사람들을 위해 간행되고 있습니다. 이 영어판 리아호나는 세계 어느 지

역에서나 볼 수 있습니다.

일부 언어판은 월간으로 간행되고, 그 외의 다른 것들은 격월간이나 계간으로 간행되고 있습니다. 간행 빈도는 솔트레이크시티의 교회 평의회에서 결정됩니다. 그 결정은 지역 회장단의 추천과 한 언어를 사용하는 말일성도 가족수, 구독 신청수, 번역 및 출판 자원 확보 여부 등에 근거를 둡니다.

대관장단 메시지와 방문 교육 메시지는 매달 63개 언어로 번역되어 배부됩니다. 격월간이나 계간으로 간행되는 국제판 잡지를 받아 보는 회원들은 잡지가 출판되지 않는 달에 이 메시지들을 신권 지도자로부터 비잡지 형태로 받아 볼 수 있습니다.

잡지는 31개 언어로 출판되고 있고, 또 다른 32개 언어로 이들 메시지가 간행되고 있습니다. (옆의 표 참조)

잡지 구독 신청

새로 구독 신청을 하시거나, 이미 구독 중인 성도의 벅을 재구독해 주십시오. 여러분이 어디에 살고 있는 어떠한 언어로도 구독하실 수 있습니다.

선물로 세계의 어느 곳이라도 보낼 수 있는 국제판 잡지를 구독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교회 회원이든 아니든 간에 친구나 친척, 새로 침례 받은 회원, 또는 여러분이 알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 구독 신청을 해줄 수 있습니다. 교회 잡지는 결혼이나 기념일, 생일, 축제일, 졸업, 그 외

다른 행사 등을 축하하는 훌륭한 선물이 됩니다. 도서관이나 학교, 병원, 의사나 치과 의사 사무실, 또는 지역 공공 건물 등에 잡지를 기부하십시오.

국제판 잡지를 구독 신청하는 방법: 매월 호의 첫 장이나 지역 소식 마지막 쪽에 나오는 구독 신청 안내에 따라 신청하십시오. 혹은 와드나 지부 <성도의 벅> 담당자, 집행 서기, 와드 서기, 감독 또는 지부장과 상의하십시오. 혹은 교회 배부 센터에 연락하십시오. 잡지를 개인 가정으로 우송하는 것이 용이하지 않은 일부 지역의 경우에는 잡지가 와드 또는 지부로 보내어져서 그 곳에서 개인이나 가족에게 전달됩니다.

기고하는 방법

여러분의 논평이나 제안, 간증, 기사 등을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접수하는 모든 것을 출간할 수는 없지만, 전세계의 독자로부터 온 많은 기사를 게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모국어로 기사를 써서, 성명과 주소, 와드/지부 명칭, 스테이크/지방부 명칭 등을 기재하여 보내 주십시오. 잡지 첫 장에 나오기도 하는 다음 주소로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International Magazines, 50 East North Temple, Floor 25, Salt Lake City, UT 84150 - 3223, USA

지역 소식을 위해 기사를 보내시기 바랍니다. 지역 소식 기사는 여러분 지역의 국제판 잡지의 첫 장이나 지역 소식 마

지막 쪽에 나오는 지역 주소로 보내시기 바랍니다.

이 잡지에서 유익을 얻는 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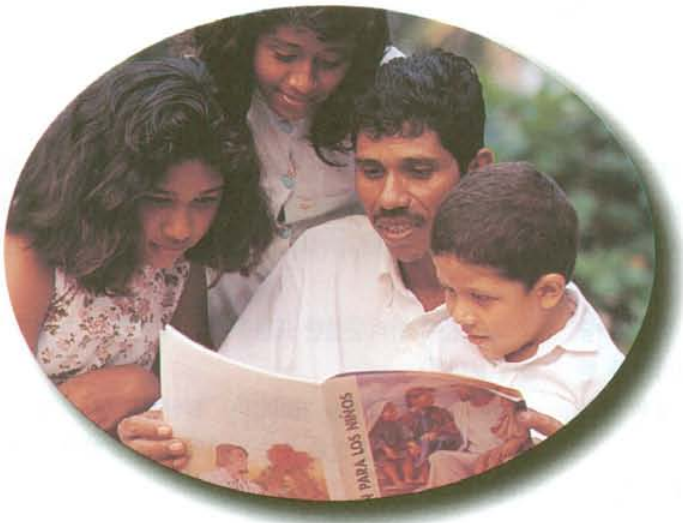
잡지는 여러분의 개인적인 복음 공부 및 가정에서의 복음 공부를 위한 훌륭한 자원이 됩니다.

잡지에는 아이들과 청소년들을 위한 기사와 활동이 게재되어 있습니다.

잡지에는 가정 복음 교육, 방문 교육, 초 등협회 함께 나누는 시간, '우리 시대를 위한 가르침', 그 외의 공과나 말씀 순서에서 활용할 수 있는 자원으로써, 여러분이 교회 부름을 충실히 행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잡지에는 지역 및 교회의 최신 소식이 게재됩니다. 여러분이 관심을 갖고 있는 지역에 관한 기사를 읽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또한 고든 비 힝클리 대관장의 권고나 여행 및 활동에 대한 소식이나 다른 교회 지도자들의 근황에 대한 소식 등과 같이 교회의 최신 사건들에 대해 알 수 있습니다.

잡지에는 여러분이 비회원들과 복음을 나누고 활동이 다소 저조한 회원들의 간증을 새롭게 하는 방법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전세계로부터 주님의 영이 교회 잡지를 통해 많은 사람들의 삶을 변화시켰다는 간증이 적힌 편지들을 받고 있습니다. □



잡지의 형태로는 31개어로 출판되고 있는 것에 덧붙여, 대관장단 메시지와 방문 교육 메시지가 현재 비잡지 형태를 빌어 32개어로 간행되고 있습니다.

알바니아어
아랍어
동부 아르메니아어
비슬라미어
점자판 (영문)
캄보디아어
크로아티아어
에스토니아어
그리스어
아이티어
헝가리어
몽어
일로카노어
코스라이언어
라오어
라트비아어
리투니아어
몰타어
마살 제도어
몽골어
모투어
신멜라네시아어
(영어와 멜라네시아어의 혼성어)
니우에안어
폰페이안어
레로통기어
세르비아어
슬로바키아어
슬로베니아어
타히티어
트럭어
터키어
와라이어



가장 귀한 질문

팻 메이어스

그림: 딜린 마쉬

나는 고등학교에 다닐 때 인기 있는 편이 아니었다. 그래서 남들처럼 가까운 친구가 그렇게 많지는 않았다. 부끄럼을 잘 땀기 때문에 대부분의 시간을 혼자서 보냈다. 심각할 정도로 부끄럼을 타는 체질이라 고통스러운 지경이었다.

하루는 역사 수업을 받으려고 책상에 앉았는데, 또 다른 수업음을 잘 타는 소녀가 내 뒤에 앉았다. 예전에 서로 이야기를 한 적은 있었지만, 그렇다고 그녀에 대해 잘 알고 있는 것은 아니었다.

그녀가 책상에 책을 내려놓다가 공책 한 권을 내 곁에 떨어뜨렸

다. 그 공책 겉 표지에 *세미나리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라고 적힌 글자가 눈에 띄었다. 나는 몸을 숙여 공책을 주워 들었다. 그녀에게 공책을 돌려주면서 간신히 말을 건넸다. "너 토요일에도 교회에 가니?"

그 질문에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으며, "아니, 그런데 왜 그렇게 물어 보니?"

나는 공책 겉 표지를 가리켰다.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라고 적혀 있잖아. 그 말은 주중 마지막 날에 교회에 간다는 뜻이 아니니?"



그녀는 미소를 지으며 약간 킁킁 웃었다. 그러고는 크게 숨을 들이쉬며 물었다. "물론 교회에 대해서 아는 게 좀 있니?"

나는 매우 솔직하게 대답했다. "잘 몰라."

그녀는 숨을 다시 한 번 깊게 들이마시며 물었다. "좀 더 알고 싶지 않니?"

나는 선뜻 대답했다. "응, 그러고 싶어."

그 순간 그녀는 너무 놀라 입을 다물 줄 몰랐다. 그녀의 두 눈은 반짝였고 안도의 숨을 쉬는 듯이 보였다. 난 그녀의 이름이 이반 앤 더슨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우리는 친구가 되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우리는 선교사들을 만날 약속 날짜를 정하고 첫번째 토론을 가졌다. 내가 칩레를 받았을 때 이반이 함께 했다.

나는 그 공책이 우연히 바닥에 떨어졌던 것이 아니란 것을 알고 있다. 내가 했던 첫 질문이 어리석게 들렸다 하더라도 참으로 좋은 질문이었다. 그 질문으로 인해 한 수줍음 많은 소녀가 또 다른 수줍음 많은 소녀에게 "좀 더 알아보고 싶지 않니?"라고 물어 볼 수 있는 계기를 열어 준 것이었다.

그날 역사 시간에 우리의 우정은 그렇게 맺어졌다. 그 귀한 두 질문이 수줍음 많은 두 소녀를 영원한 친구로 이끌어 준 것이다. □

동유럽에 뿌리 내린 복음에

데니스 비 노인슈안더 장로 칠십인 정원회

사진 촬영: 크레이그 다이몬드, 모로나이 친서상



하나님께서는 전세계로 복음을 전파하는 사업에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섭리를 정하셨습니다. 오랜 옛날부터 예언자들은 주님의 말씀이 모든 나라에 꿰뚫고 들어가 모든 족속과 방언과 백성들에게 전파되리라고 가르쳐 왔습니다. 아브라함은 그 후손들에게서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니” (창세기 22:18)라는 약속을 받았습니다. 니파이는 “하나님의 어린 양의 교회(가) ... 온 세상에 퍼(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니파이일서 14:12) 또한 주님은 친히 이같이 선언하셨습니다. “(나의) 음성은 만민에게 미치며 ... 보지 아니할 눈도 없으며 듣지 아니할 귀도 없으며 꿰뚫리지 아니할 마음도 없느니라.” (교리와 성약 1:2)

지난 20여 년 간 동유럽 국가에 복음이 자리를 잡아 이와 유사한 많은 예언이 성취되었음을 명확히 증거해 줍니다. 그러나 이 같은 성취는 오랜 기간의 준비와 동유럽 정치 풍토의

중대한 변화를 배제하고서는 일어날 수 없었습니다. 또한 여러 해에 걸친 교회 내에서의 준비가 없었더라면 성취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그러한 준비와 변화와 관련된 몇 가지 사건들에 대한 개인적인 관찰에 근거한 것입니다. 1975년부터 1991년 사이에 우리 가족과 저는 유럽에서 수 년간 살았습니다. 그곳에서 저는 맨 먼저 교회 가족 역사 마이크로 필름화 사업에서 봉사하던 것을 시작으로, 그 후 선교부장과 총관리 역원으로 봉사하였습니다.

유럽에서의 변화

제2차 세계 대전이 종결되자, 동구의 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개인적, 정치적, 종교적 선호도를 표현할 자유를 추구하였습니다. 그러나 단일 정당에 의한 지배로 이러한 표현을 하는 것이 어렵게 되었



대한 회고

고 급기야 위태로운 정치적 대립으로 발전하였습니다. 폴란드, 체코슬로바키아, 헝가리, 유고슬라비아 등의 국민이 이러한 분쟁에 휘말리게 되었습니다. 1956년에 헝가리와 1968년에 프라하에서 일어났던 민중 봉기는 가장 주목할 만한 항쟁이었습니다. 폴란드에서 1956년, 1970년, 1976년에 각각 일어났던 노동자 소요는 결국 1980년 12월에 자유 무역 노조인 솔리더리티의 결성을 초래했습니다.

이러한 정치적 항쟁의 표출은 1989년 헝가리에서 절정에 달했습니다. 1989년 5월 1일 헝가리는 오스트리아와의 국경에 쌓아 두었던 담을 허물기 시작했고, 동독인들이 헝가리 국경을 넘어 오스트리아로 가는 것을 허용하였습니다. 9월 10일경에 10만여 명이 넘는 동독 시민들이 서

구로 넘어갔습니다.

당시 저는 가족과 함께 오스트리아 빈에 살고 있었습니다. 매일 저녁, 텔레비전 저녁 뉴스 시간에는 국경을 넘어 오스트리아로 넘어오는 동독 사람들을 떠들썩하게 환영하는 모습을 담은 장면이 방영되었습니다. 그들과 함께 헝가리인들도 왔습니다. 헝가리에서 빈으로 들어오고 나가는 진입로가 이제는 자유롭게 여행할 수 있게 된 헝가리인들로 가득 찼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오스트리아를 한 번 보려고 왔다가 집으로 되돌아갔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유 망명법의 혜택을 입고자 남기로 결정하기도 하였습니다. 또 다른 사람들은 아직 자국에서 살 수 없는 제품들을 구입하려고 국경을 넘어왔습니다. 세탁기며 냉장고며 물품들을 지붕에 매달고서 헝가리로 돌아가는 차량을 흔히 볼 수 있었습니다.

이 같은 경계가 붕괴된 결과를 가장 잘 보여 주는 사건이 바로 베

아래: 동구권에서 달라진 교회 위상을 보여 주는 이상적인 전형으로, 물문 태버나클 합창단이 1991년도 6월 순회 공연 기간 중에 모스크바의 붉은 광장에서 포즈를 취했다. 반대편 쪽, 위: 발레리 벨취코에 의해 제작된 우크라이나의 모로나이 천사상은 한때 종교의 자유를 거부했던 나라에 복음이 들어감을 알리고 있는 듯하다.





말일성도 교회 기록 보관소 사진 제공



말일성도 교회 기록 보관소 사진 제공

러린 장벽의 붕괴였습니다. 단지 소련령에 속한 베를린 지역만을 둘러싸고 있었지만, 베를린 장벽은 동구권 전역에 걸쳐 지배적이던 폐쇄된 정치 경제 체제의 상징물이었습니다. 1989년 11월 9일에서 10일로 이어지는 밤 사이에 벌어진 베를린 장벽의 붕괴는 동구의 개방을 상징하는 것이었습니다.

새로운 삶이 동구의 다른 지역에서도 밝아 오기 시작했습니다. 11월에 베를린 장벽이 열린 지 2주 후에, 수천 명의 체코인과 슬로바키아인들이 빈으로 왔습니다. 체코슬로바키아에서 온 수백 대의 버스를 수용하기 위해 도시 외곽에 특별 주차장을 마련해야 했습니다. 도시 전체가 축제 분위기에 젖어 들었습니다. 수많은 상점의 창문마다 헝가리어와 체코어로 된 간판들이 걸렸습니다.

이러한 사건들이 일어나면서 동구 전역에서 서방 기업인이나 기타 사람들과의 개인적인 접촉은 말할 것도 없이 텔레비전이며 신문, 뉴스, 잡지 등을 더욱 가까이 접할 수 있는 빈도가 높아졌습니다. 이러한 접촉은 더 이상 억제할 수 없는 확신과 활달한 변혁의 움직임을 낳은 희망을 가져왔습니다. 동서간의 정치적 분열이 근본적인 변화를 맞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변화에 지대한 공헌을 한 곳은 다름아닌 모스크바였습니다. 1987년에 미하일 고르바초프는 글라스노스트(개방)와 페레스트로이카(개혁)라는 자신의 정치적 노선을 천명했습니다. 이 용어는 여러 해 동안 동구권의 사람들 사이에 자라난 태도의 변화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태도의 변화가 종교의 자유를 포함한 보다 폭 넓은 개인의 자유를 갈망하는 국민들의 열망에 점차 동정하는 정부 관리를 통해 표출되기 시작했다는 점은 참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교회를 위한 준비의 시기

1989년에 일어난 일련의 정치적 사건들이 오랜 준비 기간을 거쳐 일어났듯이, 복음이 소개되기까지는 오랜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교회는 이 지역에서 이미 낮은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이미 예전에 다른 정권하에서 선교사들은 동구권 국가에서 많은 성과를 올리고 있었고, 총관리 역원을 비롯한 사업가, 학자 등이 그곳 지도자들과 빈번하게 교류하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교회가 이 지역에서 공식적인 존재로 자리잡지 못한 여파가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1975년경에 동독을 제외하고는 동구에서의 교회 활동은 극히 미미했습니다.

몇몇 용감한 교회 회원들이 체코슬로바키아에 남아 있었습니다. 현재 폴란드와 구소련에 해당하는 지역에서, 비록 독일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에 국한되기는 했지만, 예전에 많은 선교사들이 성공을 거두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1970년 중엽에 이러한 회원들 대부분이 세상을 떠나거나 서독으로 이주하였습니다. 동부 헝가리와 서부 루마니아 지역에는 예전의 선교사들에 의해 교회를 알게 된 사람들이 거의 남아 있지 않았습니다.

이 어려운 시기를 헤쳐 나온 회원을 대표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폴란드의 마리아나 글로니아입니다. 제2차 세계 대전중에, 그녀의 남편과 함께 나치스의 통치에 항거하는 지하 저항 운동에 참여하여 싸우다 체포되었습니다. 남편과 아이는 살해당했고, 그녀는 살아났지만 심문을 받는 도중에 겪은 가혹 행위로 말미암아 손목과 발목이 부러졌습니다. 아무런 의료 조치도 받지 못한 상태에서 관절이 그대로 아물어 평생 불구가 되었습니다. 그녀는 제대로 걸을 수조차 없어 전적으로 이웃의 도움에 의지해야 했습니다.

1958년에 그녀가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에 가입한 후, 다른 교회의 대표들은 그녀에게 교회의 회원 자격을 버린다면 자신들이 그녀의 남은 여생을 보살피고 주겠다고 제안했습니다. 1981년에 제가 그녀를 방문했을 때, 그녀는 저와 제 여행 동반자인 매튜 치엠브로노비치를 바라보면서, "형제님, 제가 결코 신앙을 버리지 않겠다는 것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녀가 처한 이



좌로부터: 1985년 6월에 프라이버그 독일 성전 헌납. 1988년 10월에 교회 지도자들이 (토마스 에스 문슨 부대관장과 러셀 엠 넬슨 장로 포함) 동독에 선교사들이 들어가도 좋다는 승인을 받음. 1년 1개월 후에 베를린 장벽이 무너짐. 아르메니아에서 온 회원들이 프라이버그 독일 성전에 참석함.



밀일성도 교회 기록 보관소 사진 제공

려운 상황 때문에 교회와의 연락은 두절되었지만 결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주님과 그분의 교회는 그녀나 그녀와 같은 처지에 있는 다른 사람들을 결코 잊지 않았습니다. 주님과 그분의 교회는 묵묵하고 끈기 있게 교회의 충만한 재원들이 동구에 되돌려질 때를 위해 준비하는 작업을 해왔습니다.

친구를 사귀

주님의 사절로서 가장 효과적이었던 것 가운데 하나는 교회의 마이크로 필름 사업이었습니다. 1957년에, 헝가리는 계보과(현재 가족 역사부)에 문서를 보관하는 것에 대해 문의해 왔습니다. 몇 년 지나지 않은 1962년에, 폴란드가 헝가리의 뒤를 쫓아 당시 유럽 선교부장이었던 알빈 알 다이어 장로와 함께 협상을 시작하였습니다. 1968년에 협정이 이루어졌고, 그 후 얼마 지나지 않아 필름 작업이 곧바로 착수되었습니다. 이 마이크로 필름화 작업을 통해 교회는 도움을 필요로 할 때 교회를 위해 대변을 해준 영향력 있는 여러 친구

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이 사업이 것처럼 효과적일 수 있었던 원인은 교회 회원과 철의 장막 뒤의 열린 마음을 가진 사람들과 우정을 키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는 것입니다. 1975년에 저는 기록 보관에 대한 문제로 원탁 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우크라이나 키예프를 방문했습니다. 교에서 열린 한 사교 행사가 끝난 후, 참여자들은 키예프로 돌아오는 긴 여정을 위해 버스에 올랐습니다. 대회 통역자 가운데 한 사람이 제 옆에 앉았습니다. 무척 늦은 시간이었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이 잠들어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그는 제게 물문이냐고 물어 보았습니다.

그의 질문은 전혀 예기치 못했던 것이었습니다. 1975년에 동구에서 교회에 대해 알고 있으며 물어 볼 용기를 가진 사람이 있으리라고는 상상이나 할 수 있었겠습니까? 저는 왜 그러한 질문을 하는지 물어 보았습니다. 그는 자신이 어느 한 대회에서 교회 회원을 만난 적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저를 지켜 보면서 자신이 일전에 알게 된 사람이 떠올랐다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여러 날 밤을 유익한 대화를 나누며 함께 보냈습니다.

저는 그 교회 회원이 누구였는지 알지 못하지만, 그의 모범은 이 사람에게 오랫동안 강한 인상을 남겼던 것입니다. 교회 회원들은 각자가 개인적인 모범을 통해 교회가 공식적으로 그 존재를 알리기 훨씬 전에 이미 복음을 소개하고 있었습니다.

또 다른 개인적인 접촉은 전문적인 도움을 주는 데서 이루어졌습니다. 이러한 접촉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교회 법률 자문을 통해 이루어졌습니다. 동구에서 발생한 정치 변화의 여파로 법 질서가 위기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여러 정부에서 현행법을 해석하고 새로운 법률을 제정하는 데 도움을 필요로 하고 있었습니다. 교회는 이러한 변화의 시기에 결코 간과할 수 없는 가치를 지닌 중요한 법률 자문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더없이 귀중한 가치를 지닌 일 가운데에는 또한 동구권에서 봉사

한 부부 선교사들의 기여일 것입니다. 그들이 행한 봉사는 다양할 뿐만 아니라 효과적이었습니다. 러시아의 외딴 지역에 있는 형무소에서 행한 인도주의적인 봉사를 비롯하여 루마니아에서의 의료 훈련, 교회 교육 기구 프로그램 수립, 교회 자료를 번역하는 일에 이르기까지 교회가 동구에서 이룬 위대한 업적은 부부 선교사들의 헌신적인 봉사가 없었다면 결코 이루어지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들은 훗날 친구들뿐 아니라 귀중한 가치가 있게 된 좋은 경험을 얻었습니다.

이러한 개척자들에게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보여 준 모범과

확고한 신앙을 인정하는 것보다 더 큰 찬사는 없을 것입니다. 1970년대 중반부터 1980년대 초까지는 동구에서 종교 문제와 관련하여 일하기가 매우 위험한 시기였습니다. 선교사들은 종종 취조를 받았고 괴롭힘을 당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언어를 사용하지 않았고, 식량이 바닥나고, 전기며 난방이며 상수도가 공급되지 않는다는 것이 어떠한 상황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더 큰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아낌없이 자신의 것들을 나누었습니다.

부부 선교사들은 교사들이었으며, 할 수만 있다면 어느 곳에서든지 복음의 원리를 개념으로 가르쳤습니다. 더욱이 그들은 교회 지도자의 입장에서 새로 교회 회원이 되었거나 미숙한 교회 회원들에게 귀중한 가르침을 주었습니다. 부부 선교사들은 모범을 통해 가

왼쪽 아래의 사진: 1991년에 브리감 영 대학의 레이매나이트 제너레이션들이 불가리아, 체코슬로바키아, 독일, 유고슬라비아 등지를 방문했다. 다른 말일성도 공연 단체처럼 이 어린 공연자들도 많은 친구를 사귀었다.





1995년 9월에 교회는 페트로자보츠키에서 러시아 마이크로 필름 오퍼레이터를 위한 훈련 세미나를 열었다. 그 세미나에는 인근의 키지 섬에 있는 교회 방문도 포함되었다. 마이크로 필름 작업은 교회가 동구에서 복음 전파를 하기 위한 기초를 다지는 데 일조했다.

장 중요한 것들을 가르쳤습니다. 미래에 대한 그들의 확신은 그대로 전달되었으며, 서로에 대한 그들의 사랑은 교회 회원들이 본받는 모범이 되었습니다. 그러한 유산을 다른 사람에게 전파하는 동구권의 말일성도들이 보여주는 헌신적인 삶에서 그들의 모범이 온전한 결실을 맺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교회의 가장 훌륭한 시절 중에는 공연을 통해 자신의 재능을 나누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는 1991년 불가리아에서 브리감 영 대학의 '레이매나이트 제너레이션' (현재의 명칭- 리빙 레전드) 공연단이 소피아에 왔을 때 일어났던 사건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들 가수들과 무용가들은 커다란 문화 회관에서 많은 아이들이 함께 한 5,000여 명의 관객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공연을 했습니다. 여러 쟁쟁한 인물들이 그 곳에 자리를 같이했습니다. 실제로 보진 장관도 제 옆에 앉아 있었습니다.

공연단의 정해진 순서를 다 끝마쳤을 무렵, 아이들이 자연스레 공연자들에 대한 사랑을 표현하며 무대로 뛰어나갔습니다. 그들 가운데 보진 장관도 함께 섞여 있었습니다. 그는 제가 미처 자리에서 일어나기도 전에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무대에 올라가 있었습니다.

어린이들이 공연자들에게 가까이 다가가자, '레이매나이트 제너레이션'은 '나는 하나님의 자녀'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불가리아인들은 그 노래를 한 번도 들어 본 적이 없었지만, 그 노래를 듣자마자 모두가 멈춰 서서 경건하게 앉아 무대를 가득 메웠습니다.

그 경험과 다른 유사한 경험을 통해 저는 주님의 영에는 국경이 없다는 것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국경을 넘어 사람들의 마음을 움

직이는 데에는 아무런 입국 사증이 필요 없습니다. 주님께서는 교회에서 선교사들을 동구권 국가에 보내기 아주 오래 전부터 역사해 오셨습니다.

불가능해 보이는 일을 가능케 하시는 분

교회가 스테이크나 선교부가 조직되지 않은 곳에 거주하는 회원들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국제 선교부를 조직한 해인 1972년에 선교 사업이 필연적으로 이들 나라에서 다시 시작되었습니다. 이 선교부가 맡고 있는 책임 가운데 하나는 이들 지역에서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 가능한지 탐색해 보는 것입니다. 동구권에서 이 탐색 작업에 충실하게 봉사했던 회원들은 주로 오스트리아 출신으로 구스타프 살릭 형제, 글렌 와너 형제와 그의 아내, 레니 자매, 에드윈 모렐 형제, 스펜스 제이 콘디 형제(현재 칠십인 정원회의 회원), 요한 윈드라 형제 등이 있었습니다.

1960년대에 십이사도 정원회의 일원이던 토마스 에스 몬슨 부대 관장이 일궈 놓은 토대 위에, 십이사도 정원회의 일원인 러셀 엠 넬슨 장로와 칠십인 정원회의 한스 비 링거 장로가 1980년 중엽에 동구권 전역을 돌며 이들 나라의 정부와 빈번한 접촉을 시도했습니다. 그러한 접촉의 결과로 동구권 몇 개국에서 선교 사업이 활기를 띠게 되었습니다.

1987년 7월에, 저는 새롭게 창설된 오스트리아 빈 동 선교부를 관장하기 위해 빈에 도착했습니다. 선교부는 34명의 선교사로, 그 중에 부부 선교사 8팀과 6명의 장로로 이루어진 22명은 동구에서 봉사하는 것으로 시작하였습니다. 동구에서 일어난 정치적 인 변화와 사도들의 여러 차례에 걸친 방문 결과, 많은 것을 성취할 수 있을 것으로 여겨졌습니다. 그러나 갓 부임한 신임 선교부 장으로서, 저는 실제로 어떻게 개종을 이룰 수 있을지 불안하기만 하였습니다.

제가 도착한 지 얼마 되지 않아 러셀 엠 넬슨 장로가 방문했을 때, 저는 총관리 직원들이 무엇을 기대하고 계신지 물어 보았습니다. 당시로서는 그러한 노력이 불가능해 보이는데도 개종자를 찾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합니까?

넬슨 장로는 제 어깨 위에 손을 얹고서 말씀했습니다. "주님은 불가능해 보이는 일을 가능케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불가능한 것을 기대하고 계십니다."

그 말씀을 듣고서야 저는 우리가 어느 정도 해낼 수 있으리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 같은 노력을 기울이면서, 우리는 복음이 동구인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밝고 놀라운 점들을 지니고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성전과 가족 관계에 관한 교리, 복음이 전해 주는 희망, 사람들의 항상 욕구, 자신의 마음을 무한히 넓혀 주는 사상들, 현세의 삶 외에도 계속되는 삶이 있다는 이해 등등, 복음의 모든 측면이 크나큰 호소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특히 물질주의적인 가치관의 세계에서만 살아온 젊은이들은 물질주의는 행복을 가져다 주지 않는다는 것을 직관적으로 알고 있는 듯했습니다. 그들은 영적인 양식을 갈망했습니다.

어느 추운 1월의 어느 날, 우리는 한 칸짜리 유치원에서 모임을 갖고 있는 불가리아의 어느 지부를 방문했습니다. 이미 모임은 시작되었는데, 우리가 그 곳에 도착했을 때 모든 남자들이 밖에서 눈을 맞으며 동그렇게 둘러서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는 물었습니다. “도대체 이곳에서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그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매들은 아이들과 함께 안에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밖에서 신권회를 갖고 있습니다.”

동구에서 교회에 가입한 사람들은 영적으로 민감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복음을 사랑하며 교회에서 느낄 수 있는 긴밀한 소속감을 사랑합니다. 그들은 서로를 사랑합니다.

동구에서 선교 사업의 폭을 넓히기 위해 교회가 노력한 것 중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녔던 것은 동독에 선교부를 세운 것이었습니다. 1988년 10월에 몬슨 부대관장은 넬슨 장로, 링거 장로, 그의 여러 지역 신권 지도자들을 대동하고 동독 국가 평의회 의장인 에리히 호네커를 만나 선교사들이 동독에서 복음 전도를 할 수 있

선교사와 개종자, 시계 방향으로, 왼쪽부터: 세베스트 마틸드, 라조스, 헝가리; 리차드 윈더 선교부장과 부인 바바라 자매, 1990년 체코슬로바키아 프라하에서 두 선교사들과 함께; 동독에 최초로 파견된 복음 선교사들, 1989년 3월 30일 동베를린에 도착 직후, 울프강 에이치 폴 독일 드레스덴 선교부장 (뒷줄, 왼쪽), 만프레드 쉬제 라이프지히 독일 스테이크 부장 (뒷줄, 오른쪽), 동베를린 와드의 한스 슐츠 형제 부부 (앞줄, 왼쪽)와 함께; 최초로 선교 사업을 한 러시아 선교사, 안톤 스크립코와 (왼쪽) 가정 방문 동반자가 러시아에서 최초 개종자 가운데 한 사람인 유리 테레베닌 (오른쪽)을 방문함. 배경: 라트비아에서의 침례

도록 승인해 줄 것과 동독 출신의 선교사들이 다른 지역에서 복음 전도를 할 수 있도록 허락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그 모임을 갖는 자리에서 호네커 의장은 서두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여러분 교회의 회원들이 노동의 가치를 믿고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것을 입증해 보였습니다. 우리는 여러분이 가족의 가치를 믿고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것을 보여 주었습니다. 우리는 여러분이 조국이라 부르는 자신의 모든 나라에서 훌륭한 시민임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똑똑히 보았습니다. 이 나라는 여러분에게 열려 있습니다. 여러분의 소망을 알려십시오.”

몬슨 부대관장의 소개 말씀은 간결하고 직접적이고 효과적이었습니다. 승인이 났고, 1989년 3월 30일에 선교사들이 50년 만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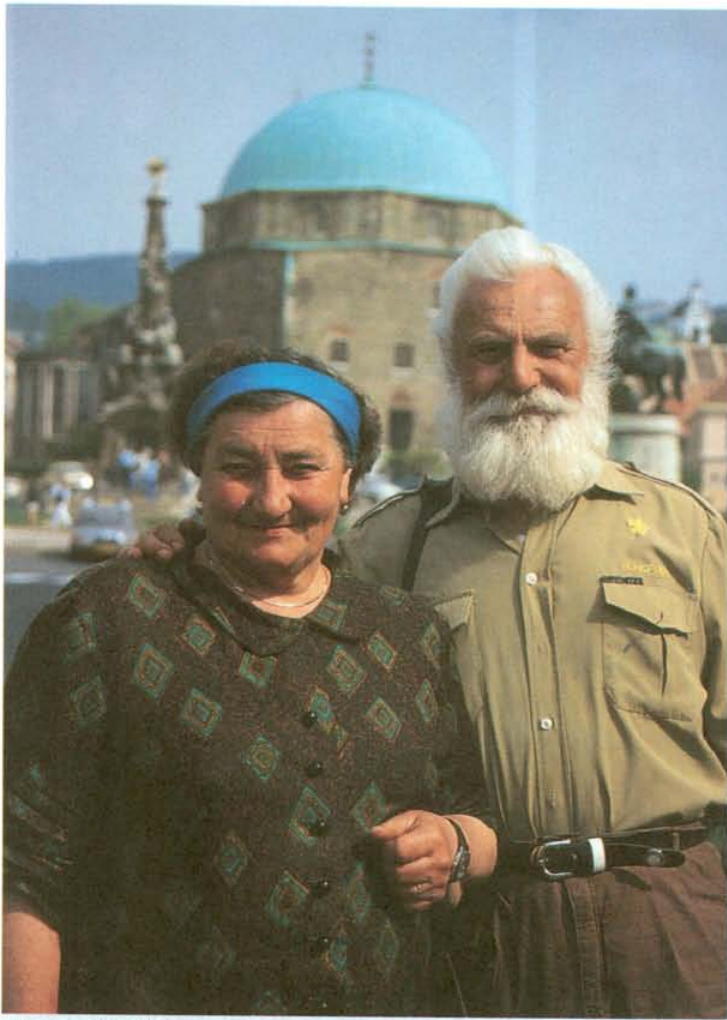


사진 촬영: 브라이언 케이 켈리



사진 촬영: 제이 엠 베슬름



울프강 에이치 풀 사진 제공



말릴성도 교회 기록 보관소 사진 제공

처음으로 동독에 들어가 복음을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두 달 후, 역사상 처음으로 동독 출신의 선교사들이 해외로 부름 받아 떠났습니다.

1989년 11월, 베를린 장벽이 붕괴되었을 당시에 교회는 이미 동구에 든든한 기반을 닦아 놓았습니다. 이미 선교사 54명이 동구와 그리스에서 봉사하고 있었습니다. 그 무렵, 교회는 폴란드에서

(1977년 5월), 유고슬라비아에서 (1985년 10월), 헝가리에서 (1988년 6월) 공식 승인을 받았습니다. 바르샤바에서는 예배당 건축 부지 기공식이 있었고, 부다페스트에서는 건물을 구입하여 헌납했습니다.

1989년 10월에 북부 러시아와 발틱 연안 국가에서 교회를 발전시키는 책임이 오스트리아 빈 동 선교부에서 핀란드 헬싱키 선





말일성도 교회 기록 보관소 사진 제공



사진 촬영: 마빈 케이 가드너



사진 촬영: 마빈 케이 가드너

왼쪽: 매튜 치엠브로노비츠, 스펜스 더블류 킴블 대관장과 부인 카밀라 자매, 매리온 치엠브로노비츠, 프리데릭 체르빈스키가 킴블 대관장이 1977년 8월 24일에 폴란드를 복음 전파를 위해 헌납하신 곳에서 가까운 폴란드 색슨 가든에 서 있다. 매튜와 매리온은 1977~1979년까지 폴란드에서 부부 선교사로 봉사했다. 프리데릭은 1977년 5월에 폴란드에서 교회를 공식 승인하는 정부 서류에 공식 서명했다. 가운데: 우크라이나 키예프의 충실한 교회 회원인 에베게니아 자매. 오른쪽: 1996년 우크라이나에서 세미나리와 신학 연구원 대학부 과정 졸업일

교부로 옮겨졌습니다. 이 같은 역사적인 조치로 말미암아 러시아, 불가리아, 우크라이나, 루마니아 등지에 대한 관심이 더욱 고조되었습니다. 그 해 말엽에 선교사들이 이들 국가에서 봉사하게 되었습니다.

다른 동구권 국가들이 곧 이어 그 뒤를 따랐습니다. 1990년 3월 1일에 체코슬로바키아가 교회를 승인하여 3월 2일에 장로들이 다시 들어갔고, 그들이 돌아오기를 40여년 동안 간구해 온 회원들의 따뜻한 영접을 받았습니다.

1990년 7월에는 다섯 개의 새로운 선교부가 세워졌습니다. 폴란드 바르샤바 선교부, 체코슬로바키아 프라하 선교부, 헝가리 부다페스트 선교부, 그리스 아테네 선교부 등이 세워졌습니다. 오스트리아 빈 동 선교부 지역 소속이었던 모스크바와 헬싱키 선교부에 의해 관할되던 레닌그라드를 한 지역으로 묶어 다섯 번째 선교부인 헬싱키 동 선교부가 조직되었습니다. 1991년 7월에, 또한 불가리아, 우크라이나, 러시아 등지에 선교부들이 설립되었습니다.

밝은 미래

이 기간 중에 동구의 교회에서 가장 두드러지게 진척된 일은 동독에서의 성전 건립이었습니다. 동독 정부는 1978년을 기점으로 스위스 성전에 가기를 바라는 말일성도에게 더 이상 비자를 발급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교회에서는 백방으로 노력을 기울였지만 정부와 아무런 타결책을 찾지 못했습니다. 회원들은 금식하며 거룩한 하나님의 도움을 간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십이사도 정원회의 토마스 에스 몬슨 장로가 정부 지도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그들은 아주 간단한 타결책을 제시했습니다. 왜 동독에 성전을 짓지 않습니까? 프라이버그에서 약간의 부지를 매입하였고 1983년에 건축이 시작되었습니다. 2년 뒤인 1985년 6월 29일에 성전이 헌납되었습니다.

참으로 성전의 영향력은 동독에 스며들어 사람들의 마음을 부드럽게 했으며, 1980년도 말에 동구권 전역에서 일어난 극적인 변화가 일어나도록 하는 데 일조했습니다. 교회의 성전은 이들 모든 나라에서 앞으로도 계속해서 깊은 영향력을 미칠 것입니다.

동구권 국가들의 밝은 장래가 보입니다. 이들 나라 대부분이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습니다. 그러나 매우 적극적인 운동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가운데, 교회와 회원들의 역량과 확신과 소망이 신장되고 있습니다.

1996년에 미국으로 돌아오기 얼마 전에 저는 함께 일했던 사람들이 방문하여 작별 인사를 나누고자 모스크바로 갔습니다. 당시는 러시아의 정치 상황에 대한 불안감이 팽배해 있던 시기였습니다. 그들 가운데 제게 이렇게 묻는 자매가 있었습니다. "우리 나라의 장래가 어떻게 되리라 보십니까?"

저는 그녀에게 정치인으로서의 답변은 해줄 수 없지만 교회의 총관리 역원으로서 답변해 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그녀는 다시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총관리 역원으로서



리처드와 바버라 윈더 사진 제공



말일성도 교회 기록 보관소 사진 제공



모리스와 아넷 마우어 사진 제공

우리에게 무슨 말을 해주시겠습니까? 우리 나라의 장래는 어떻게 되리라 보십니까?”

저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주님께서는 소수의 충실한 사람으로 인해 나라를 보호하고 축복해 주십니다. 주님은 말일성도들이 복음에 따른 생활을 하는 한 교회가 흔들리거나 나라가 파멸되도록 내버려두시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 같은 말이 어떤 사람들에게는 자기 분위기적인 말로 들릴 수도 있겠지만, 저는 그 말이 참됨을 알고 있습니다. 만일 러시아나 우크라이나, 또는 다른 지역의 말일성도들이 자신의 나라가 번영하기를 바란다면 충실한 말일성도가 되는 것만이 가장 훌륭한 보증이 될 것입니다.

왼쪽: 체코슬로바키아 성도들이 방문 온 지도자들을 만나고 있다. (왼쪽 두번째 줄부터): 르앤 노인슈안더 자매, 크레츠 자매, 콜린 에세이 자매, 칼로스 이 애시 장로, 지리 네드플러. 중앙: 샤론 스미스가 알바니아 고아원에서 한 아기를 품에 안고 있다. 그녀와 그녀의 남편인 탈레스와 또 다른 부부 선교사는 알바니아로 들어간 최초의 말일성도 선교사들이다. 오른쪽: (왼쪽부터) 데니스 비 노인슈안더 장로, 델린 에이치 옥스 장로, 한스 비 립거 장로 등이 불가리아의 최초 선교사인 모리스와 아넷 마우어 부부와 함께 서 있다.

토마스 에스 몬슨 장로가 겪었던 1968년의 동독 체험이 그 사실을 입증해 줍니다. 몬슨 장로의 첫 방문이었고, 아직 아무런 외교적 관계가 성립되지도 않은 시기였습니다. 동독 정부내에서 교회의 사명을 이해하거나 그 성실성을 신뢰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몬슨 장로는 성도들을 만나고자 필리츠로 여행했습니다. 그는 그곳의 회원들이 스테이크의 일원이 될 때

1991년에 교회는 소피아의 이 마을 문화 회관의 1층을 임대하였고, 불가리아에서 말일성도 집회를 위해 사용된 첫번째 건물이 되었다. 왼쪽부터: 브라이언 메이어 장로, 리우라 캐런 자매, 크리스 엘그렌 장로



누릴 수 있는 축복, 곧 축복사의 축복, 교회의 온전한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와드, 성전 의식 등을 받지 못한다는 것을 알고서 무거운 마음으로 그곳에 갔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믿는 신앙을 가진 성도들이 강당을 가득 메웠습니다. 몬슨 장로가 회중들에게 말씀하려고 연단에 섰을 때, 영에 이끌려 다음과 같은 약속을 하게 되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참되며 하나님의 계명을 충실히 지킨다면, 다른 나라의 교회 회원들이 누리는 모든 축복을 여러분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날 밤 호텔 방에서, 그는 자신이 한 약속이 얼마나 위대한 것인가를 깨달았습니다. 그는 부릐를 꿇고 주님께서 자신의 마음을

움직여 전하도록 하신 약속을 영예롭게 해주실 것을 간청했습니다. 기도를 하는 가운데 시편의 말씀이 마음속에 떠올랐습니다. “...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찌어다 ...”(시편 46:10)

불과 20여 년이 지난 오늘날 독일은 민주 정부로 통합되고 나라 안에 두 개의 성전이 존재하며, 성도들은 14개의 스테이크 조직에 속해 있습니다.

우리는 이 시대의 불확실성에 불안해 하고 있으나, 주님께서 궁극적으로 모든 것이 의로운 성도들에게 유익이 되게 하시며 그들이 살고 있는 국가를 축복하실 것임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



처유의 상징, 왼쪽: 헝가리 기오르에 있는 교회 예배당 내부. 아래쪽: 독일 드레스덴에서 온 군터 술츠 뒤에 한때 전쟁과 오랜 세월의 방치로 인해 폐허가 되었던 도시에 새로운 건물들이 세워지고 있다. 동구권의 다른 대다수의 도시와는 다르게, 드레스덴은 1855년부터 계속해서 교회의 한 단위 조직에 있어 왔다.



군토트 시진 제공

제이 영 해솔름 사진 제공



그림: 브리튼 리버메르(1840~1920), 사자굴 속의 다니엘

히브리 사람이긴 젊은 다니엘은 포로로 잡혀 바벨론으로 가서 왕의 총애를 받았다. 칠통심이 많은 망백들은 음모를 꾸며 왕으로 하여금 다니엘에게 사형 선고를 내려 사자굴에서 죽게 했다. 그러나 다니엘은 주님에게 순종했기 때문에 조금도 상하지 않고 살아 있었다. 잘못을 부우친 왕은 조서를 내려 이렇게 선언했다. "내 나라 ...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을 믿어서 멸망 두려워할찌니 그는 사시는 하나님이시오 ..." (다니엘 6:26)



“교회 잡지를 펼치면,
그 곳에서 정기적으로
우리 자신과 가족을
이끌어 주고 고취시키는
살아 있는 예언자와
사도들의 말씀을 찾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전세계의 모든
회원들에게 교회 잡지를
구독 신청하고 읽을
것을 촉구합니다.”

- 대관장단 -

“전세계인을 위한
잡지” 32쪽 참조